

제 3 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향토인물 연구

—툰촌(通村) 이 집(李集)선생—

일시: 1998년 10월 16일(금)

장소: 성남문화원 강당

주최: 성 남 문 화 원

주관: (부설)향토문화연구소



遜村先生 影幀



蓮村先生墓域前景(城南市 鄉土遺跡地 第二號 指定)
(城南市 中院區 下大院洞 山7番地 所在)



道村先生齋舍「追慕齋」前景
(城南市 中院區 下大院洞 山7番地 所在)



通村先生 神道碑
(城南市 中院區 下大院洞 山3番地 大路邊 所在)



蓮村先生雜錄本文
 (1995. 4. 3. 國家寶物 1,218號로 指定되었다.
 指定寶物은 某個人이 所藏하고 있으며,
 우리 大宗會에도 指定된 寶物과 같이 印刷된
 同一本이 所藏되어 있다.)



蓮村雜錄의 表紙



蓮村先生 遺稿木版(國立中央圖書館에서 保管中)



감동구청에서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문촌동 밀자산 정상 해돋이 광장의 문촌선생 점훈비



鳳樓亭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10번지 所在)



園村先生 遺蹟碑(追慕式時)
(慶北 永川郡 北安面 道有里 廣陵谷 所在)

대 회 사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저희 성남문화원과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학계의 저명한 학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향토인물연구”라는 주제아래 성남향토유적 1호인 강정일당과 2호인 둔촌 이집선생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6년엔 “南漢山城의 現代的 再照明”이라는 주제아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역사적, 사회적 새로운 시각의 전환점을 제시하였고, '97년도에는 “南漢山城과 三學士”라는 주제아래 충신인 삼학사의 애국정신과 충효정신의 참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성남의 향토유적 1호인 강정일당과 2호인 둔촌 이집선생에 대한 인물연구라는 대주제아래 제3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회의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매년 회를 거듭할수록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변모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점 역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성남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물과 관련된 자료가 산재해 있을 뿐, 하나의 통합된 자료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향토인물연구” 학술회의가 이러한 작업의 단초가 되어 앞으로 이루어질 인물연구작업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희망하며 이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향토인물 제3호, 제4호,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단순히 문화계 지정으로써의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학술회의·기념사업·문집발간 등 다양한 사업의 실현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회의가 보람있고 유익하며 발전적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훌륭한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춘섭 소장님을 위시한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들과 관계해주신 학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대회를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6일

城南文化院長 南 善 祐

일 정

제3회 학술회의 - 향토인물연구 : 둔촌 이집과 강정일당

□ 10월 16일 (금)	□ 10월 17일 (토)
<p>등록(10:00~10:30)</p> <p>■ 제1부 개회식 사회: 이원우 사무국장 대회사(10:30~10:45) 남선우(성남문화원장) 격려사(10:45~11:05) 김병량(성남시장) 축사(11:05~11:20) 엄동준(성남시의회위원장)</p> <p>■ 제2부 학술발표 좌장: 허창우(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제발표 1(11:20~12:30) "통치의 현명한 제도" 발표: 민병하(전 상군관대) 토론: 조병로(경기대) (12:30~14:00) 중식 주제발표 2(14:00~15:00) "부유士族의 興衰" 발표: 최영희(전 한림대) 토론: 박남욱(동서울대)</p> <p>■ 제3부 종합토론(15:10~16:40) 좌장: 전보삼(신구대) 문수진(신구대), 서승업(건국대), 이종휘(성인고), 김기현(보지공사 학예관), 이장국(한국정신문화연구 원), 이경재(방송작가), 조유진(문화재연구소),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원)</p>	<p>■ 제1부 시상식 김정일당상 시상식(10:00~10:20) 사회: 이원우 사무국장 시 상: 남선우(성남문화원장)</p> <p>■ 제2부 학술발표 좌장: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제발표 1(10:20~11:20) "한국여인의 표상" -이류문사 김정일당의 작품세계 발표: 한춘섭(향토문화연구소장) 토론: 천화숙(경원대) 주제발표 2(11:20~12:20) "김정일당의 생애의 문학" 발표: 김미린(수원대) 토론: 박혜숙(건국대) (12:20~12:40) 휴식</p> <p>■ 제3부 종합토론(12:40~13:40) 좌장: 소진광(경원대) 이영성(경기도의원), 박순임(삼명대), 강성열(재천진주 강씨 종친회대표), 오동희(연합분당신문), 유신(성남교육청 장학관), 이대교(예총수석부회장) 김영리(성남문화원 이사)</p>

□ 대회준비기구

명예대회장: 김병량(성남시장)
 대 회 장: 남선우(성남문화원장)
 집행위원장: 한춘섭(향토문화연구소장)

□ 집행위원회

기획분과: 전보삼(신구대학/만해기념관장)
 총문분과: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재정분과: 소진광(경원대학교)
 학술분과: 천화숙(경원대학교)
 섭외분과: 박남욱(동서울대학)
 홍보분과: 조병로(경기대학교)

목 차

대 회 사.....성남 문화원장 남선우.....	1
제3회 학술회의 일정	3
큰 기침소리.....한춘섭.....	7
문촌선생에 대한 자료모음.....광주이씨대종회제공.....	9
주제발표 논문 I	
문촌선생의 성리학적 지위.....민병하..... (遁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45
토 론.....조병로.....	89
주제발표 논문 II	
갑자사화와 광이.....최영희..... (甲子士禍와 廣李)	93
토 론.....백남옥.....	144

큰 기침소리

— 遁村 李선비 추모 —

한 춘 섭(시조시인)

벽을 보고 눈을 감고 산하 앞에 호령하고
저건 또 무어나고 외쳤던 두 주먹은
선구자
매서운 말씀, 불빛 아래 그림자.

막막한 먼 먼 세월 오늘 같은 어제 그제
高麗 혼 우리 거래 잘되라 비나이다
기어코
시시비비는 분별하던 님이거니.

큰 기침 잠재운 채 세상 열었도다
城 둘레 살핀 발길 半島가 먼동 뜨면
무명웃
이곳 저곳에 一片丹心 선비고녀.

恨 넷물 흐르거라, 안개비야 걸히거라
廣州 땅 술향기로 긴긴 날에 풍겨지면
遁村은
누리 가운데 천만년을 살을랐다.

바람아 너도 이제, 살 맛 알아 살고 지고
우렁찬 힘을 내어 쓸어버릴 年代거니
큰 어른
큰 기침 소리 城南 뒤편의 신령이다.

'98 성남문학인 작품선집(1998. 6.20.)

둔촌선생(遁村先生)에 대한 자료 모음

廣州李氏大宗會 제공

※ 둔촌선생의 略傳

1. 행 록(行錄)
2. 사우연원록(師友淵源錄)
3. 묘갈문(墓碣文)
4. 신도비명명서(神道碑名并書)
5. 유고서문(遺稿序文)

遁村先生の略傳(1327~1387)

1327. 6. 2. -李唐의 둘째아들로 탄생
(충숙왕 14. 丁卯)
-李嘉賢(1287~1367), 安輔(1302~1357)
門下에서 修學
1347. 2. -貞和宅主 영주黃氏(정부인)와 結婚
-文科에 及第
-장남 之直 출생
-차남 之剛 출생
-삼남 之柔 출생
1368. -신돈(辛旽)을 탄핵함으로써 체포령을 피하
여 영남의 永川 崔元道(泉谷)집에 은신
1369. -父 李唐 서거(崔泉谷 모부인 묘소아래 蘿
峴에 장례)
1371. -辛旽이 伏誅됨으로써 피신생활을 끝내고
開城 龍峴 洞 玄化里 옛집에 귀가하여 奉順
大夫 관전교시사의 벼슬을 사임, 이때부터
字成老를 浩然으로 諱元齡을 集으로 號墨
岩子를 遁村으로 각각 고침.
-合浦(현 창원) 從事로 부임.
-廣州府의 遁村(현 서울시 강동구 문촌동)
과 大院村(현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에
은거함.
-驪興村의 川寧縣(현 경기도 여주군 금사
면 이포리 강촌)에 은거함(堂號~천녕강
사, 혹은 鳳樓亭)
- 1380.(禔王 6) -장남 之直 文科에 급제
1382. -차남 之剛 文科에 합격
1387. 6. 6. -臥病 중에 별세. 墓 廣州군 세촌면 대원리
(현 성남시 하대원 산 7) 幽宅에 장례

(승록대부 의정부좌참성 겸 지경연춘추관
사 판의금 부사 세자 貳師에 贈職됨) 향년
61세

- 1389. -삼남 之柔 문과에 급제
- 1410. -한시를 모아 장남의 주선으로 公州에서 『遜村 遺稿』 初刊 발행
- 1411. -종손인 長孫 文科에 급제
- 1417. -차손 仁孫 文科에 급제
- 1451. -仁孫의 주판으로 尙州에서 『遜村 遺稿』 再刊
- 1522. -墓碑를 改莎草
- 1589. -8대손 士溫과 외손 尹斗壽에 의해 『문촌 유고』 3권 발행
- 1632. -9대손 如圭가 尙州에서 『문촌 유고』 4권 발행
- 1669. -廣州 士林의 주선으로 광주군 구천면(현 서울시 암사동 山1번지)에 龜岩書院을 建立
- 1686. -10대손 厚遠에 의해 『문촌 유고』 5권 발행
- 1697. -龜岩書院에 賜額 내려짐.
- 1846. -15대손 基白에 의해 『문촌 유고』 6권 발행
- 1916. -16대손 泰會에 의해 『문촌 유고』 7권 발행
- 1916. -17대손 秉赫에 의해 『문촌 유고』 8권 발행
- 1962. -20대손 熙載의 주선으로 서울에서 『遜村 遺稿』 9권 발행
- 1985. -大宗會 주관으로 墓碑 개수 및 改莎草
- 1986. -大宗會 주관으로 神道碑 건립
- 1992. -『遜村先生 遺稿』 (국역) 10권 발행
- 1993. 7. 5. -墓域을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
- 1994. -문촌선생 유적비 제막식 및 蘿峴會館 준공식(경북 영천군 북안면 도유동)
- 강동구 一字山에 문촌선생 정훈비 건립
- 1995. -광주이씨 대종회 주관으로 여주 천남현에

1996. '봉서정' 복원
- 동춘청소년 문학상 제정 시상
1998. - 학술회의(성남향토문화연구소 주관) '향
토인물연구'

1. 행 록(行錄)

천하의 모든 사물(事物)은 그 근본이 있고 그 말단이 있는 것이니 그 근원이 있음으로써 그 말류(末流)가 있는 것은 천리(天理)의 상경(常經)이자 인도(人道)의 정리(定理)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자(程子)가 일찍이 이르기를 『천하에는 근본이 없는 사물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사실이다. 동방(東方)에는 신라(新羅), 고려(高麗)시대 이후로 도학(道學)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하였는데 회헌(晦軒) 안유(安子)가 나와서 주부자(朱夫子)의 통서(統緒)를 이어 제현(諸賢)에게 전수(傳授)함으로써 사도(斯道)가 다시 밝아지게 되었다.

도은(陶隱)이 말하기를 『이문충공(李文忠公, 諱諱)과 안문경공(安文敬公, 諱諱)의 도학과 문장(文章)은 일세(一世)의 사표(師表)가 되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眼目)과 선비를 찾는 열의(熱意)는 옛사람들도 미치지 못할 바였다. 그러기 때문에 호준(豪俊)들이 많이 그 문하(門下)에서 나왔으나 양공(兩公)이 사랑하고 아낀 사람은 광리군(廣李君)이 으뜸이었다.』 하였는데 광리군은 바로 우리 선조(先祖) 둔촌선생(遁村先生)을 가리킨 말이다. 선생께서는 학문(學問), 절의(節義), 문장(文章), 고행(高行)으로 이름은 사림(士林) 사이에 두드러지고 덕(德)은 일세에 으뜸이어서 사람들이 이마에 손을 대고 탄상(歎賞)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천재(千載)가 가깝도록 후손은 중다(衆多)하여

관면(冠冕)으로 계승하면서 도학을 주로 하고 절행(節行)을 숭상하여 명성(名聲)을 이루고 덕업(德業)을 넓혀 역내(域內)에 충만하니 본말(本末), 원류(源流)의 이치에서 연유하였음을 따라서 알 수 있겠다.

선생의 휘(諱)는 집(集)이요, 자(字)는 호연(浩然)이며 호(號)는 둔촌(遁村)인데 초휘(初諱)는 원령(元齡)이요, 자는 성로(成老)요, 호는 묵암자(墨巖子) 또는 남천(南川)이었다. 선생은 원(元) 태정(泰定) 정묘(丁卯, 충숙왕 14 一三二七) 六月初 二日에 태어나 황명(皇明), 홍무(洪武) 정묘(丁卯, 우왕 十三 一三八七) 六月 二九日에 졸하셨으니 향년(享年) 六一才요, 뒤에 손자 인손(仁孫)의 귀(貴)로 추은(推恩)하여 승복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지경연 춘추관사 판의금부사 집현전 예문관 대제학 세자이사(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春秋館事判義禁府事集賢殿藝文館大提學世子貳師)에 증직되었다. 고려(高麗) 충목왕(忠穆王) 三年 정해(丁亥)에 영천(永川)의 최사간 원도(崔司諫 元道)와 동방(同榜) 진사(進士)하였는데 그때 선생의 나이 二一才였고 가정선생(稼亭先生, 諱)이 시사(試士)의 지공거(知貢舉, 諱)가 되었으며 공민왕(恭愍王) 四年 을미(乙未)에 병과(丙科) 제육인(第六人)으로 등제(登第)하였는데 그때 나이 二九才였고 안문경 선생(安文敬先生, 諱)이 시사의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었다. 그리하여 내외직을 두루 거처 벼슬이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奉順大夫判典校寺事)에 이르렀는데 동조(同朝)의 명유(名儒), 목은(牧

隱, 淵), 포은(圃隱, 李滉), 도은(陶隱, 李穡), 척약재(楊若齋, 李穡), 행촌(杏村, 李穡), 야당(野堂, 李穡), 원재(員齋, 李穡), 어촌(漁村, 李穡)등 제현(諸賢)이 애경(愛敬)하고 추증(推重)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또 당시에 팔청(八淸), 구일(九逸)의 명칭이 있었는데 선생은 각기 다 끼었었다. 선생께서는 천성이 개직(介直)하고 충효가 두루 지극하여 금석(金石)으로 일관(一貫)하였으며 화하(華夏)를 높이고 이적(夷狄)을 배척하였으며 이단(異端)을 물리치고 사목(邪慝)을 제위하였기 때문에 목은옹(牧隱翁)이 선생의 찬명(贊銘)에서 이르기를 「한 마음의 작용에서도 성현(聖賢)을 바라서, 그 올바름을 구하고 그릇됨을 버렸도다. 목트 이계 사달(四達)하였기에 아무리 썩도 다함이 없었고, 천지간에 가득하여 호발(毫髮)에까지 미쳤도다. 더군다나 이륜(彝倫)에 있어서는 뉘라서 순치(馴致)를 막을 수 있었으랴? 자처(自處)하기 태연(泰然)해도 능히 그 천성(天性)을 온전히 하였도다.」 하였다. 여기에서도 선생은 사도(斯道)를 자기의 소임으로 삼고 일세(一世)를 징청(澄清)할 뜻이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홍무(洪武), 무신(戊申, 공민왕 十七 一三六八)에 이석탄(李石灘) 존오(存吾)와 함께 신돈(辛旽)을 소척(疏斥)하였고 또 입시(入侍)하여 면전(面前)에서 신돈을 논척(論斥)하기를 『하늘에는 두 해[日]가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君)이 없는 것이어늘 요승(妖僧)이 어찌 감히 어상(御床)에 앉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단 말

이냐?』하고 급히 어상에서 내려오라고 호통하니 신돈이 황망히 내려와서 앉았다. 임금의 크게 노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감히 나의 스승을 논척하느냐?』하고 파척(罷斥)하여 유배(流配)하라고 명하였는데 간관(諫官) 정몽주(鄭夢周)가 구(救)하여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다. 또 신돈의 문객(門客) 채판서(蔡判書)가 신돈의 위세(威勢)를 믿고 불의(不義)를 자행(恣行)함을 꾸짖고 돈적(屯賊)의 흉칙한 죄상을 백번 죽여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고 성토(聲討)하였다. 그리하여 채가(蔡哥)가 신돈을 꼬드기어 화(禍)가 곧 헤아릴 수 없이 되자 변복(變服)으로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영남(嶺南)의 영천(永川)으로 망명(亡命)하여 최동년(崔同年) 사간(司諫) 원도(元道)의 집에 몸을 의탁하였는데 낮에는 다락 위에 숨었다가 밤에는 규중(閩中)에서 잤으며 四年을 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접대는 매우 융숭하였다. 선공(先公)께서 작고하시자 최사간이 빈염(殯斂)의 차비를 한결같이 친부모와 같이 갖추어 그 어머니의 묘소 곁의 록동(麓)에 묻게 하고 시(詩)를 지어 주었는데 우도(友道)도 오륜(五倫) 가운데의 하나이지만 사간옹(司諫翁)이야말로 참으로 만고(萬古)의 의인(義人)이라 이를 만하다.

신해년(辛亥年, 공민왕 二十 一三七一)에 신돈이 복주(伏誅)되자 선생께서는 비로소 화기(禍機)에서 벗어나 六月에 서울(京城)의 현화리(玄化里) 집으로 돌아와 도은(陶隱)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서울에 돌아와서 여러 벗들과 만나니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하오. 몸이 다시 태어났는데 이름만은 옛 것을 쓸 것이 있겠소.』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집의(集義)에서 생긴다」(集義生)는 뜻을 취하여 지금의 이름과 자(字)를 고치고 또한 둔피(遁避)의 괴로움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둔(遁)자(字)로 호를 하였다. 그러자 도인이 말하기를 『그대의 용모(容貌)와 기절(氣節)은 매우 현절차서 비록 유리(流離) 전패(顛沛, 顛沛) 중에 있어서도 이를 일소(一笑)에 부치고 조금도 언짢아 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참으로 드러난 고세사(高世士)이다. 대절(大節)에 다달아서는 확고히 꺾을 수가 없어 도거(刀鉅) 정확(鼎鑊, 鑊)도 그 위력을 잃고 현면(軒冕, 軒冕) 규조(柱組, 柱組)도 그 높음을 잃으며 천사(千駟, 千駟) 만종(萬鍾, 萬鍾)도 그 부(富)를 잃게 되는데 이는 어떤 일일까? 내게 있는 의기(義氣)가 그것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당시에 도옹(陶翁)이 서로 사귀면서 눈으로 보고 기록한 바가 이와 같으니 고금(古今)이 비교가 되고 그 형용과 성덕(盛德)을 추상(追想)할 수 있겠다. 선생은 그 후에 여주군(驪州郡) 천녕현(川寧縣)의 강가에 집을 새로 마련하여 살았는데 목은(牧隱)의 침류정(枕流亭), 척약재(楊若齋)의 육우당(六友堂)과는 서로 가까워 조석으로 왕래하면서 대화(對話)를 나누었고 또 혹 강 위에서 낚시질도 하고 혹 산 속에 들어가 놀기도 하면서 만년(晩年)을 보냈다. 포은옹(圃隱翁)이 선생에게 보낸 서간(書簡)에서 이르기를 『여강(驪江)은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선생도 알고 계셨구려 / 그러나 선생이 나보다 먼저 선수(先手)를 칠 줄은 생각지 못하였소. 남쪽을 바라보면 나도 몰래 창연(惘然)해진다오. 더구나 세상에 새로운 일은 해(歲)로 달라지고 달(月)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요사이 들으니 척약재(楊若齋)가 여묘중(廬墓中)이라 하여 도은(陶隱)과 함께 필마(匹馬)로 조문(吊問)을 가려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천녕(川寧)에서 하루밤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요』 하였고 또 다른 서간에서는 『태양 가을이 되면 산수(山水)의 흥취(興趣)가 더욱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데 선생은 어떤 분이기애 혼자서만 이러한 흥취를 얻었드란 말이오? 사람이 돌아간다니 더욱 허전함을 어찌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포은옹이 우리 선생의 조예(造詣)에 깊이 허여(許與)한 바가 이토록 경중(敬重)하였으니 학력(學力)이 팍차고 행의(行義)가 높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는가? 도의(道義)의 고명(高明)함이나 강학(講學)의 독실함이 포은과 같은 이가 없었건만 유독 우리 선생에게만은 이르기를 『맹씨(孟氏, 萬壽)』의 가르침을 공손하게 이어받아, 조장(助長)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지. 천고(千古)를 두고 이 마음은 같나니, 연어(鳶魚)는 아득히 양양(洋洋)하구나.』 하였으니 선생의 함양(涵養)한 공정(工程)과 궁리(窮理)의 심오(深奧)하였음을 다 징험할 수 있다 하겠다.

현종(顯宗) 기유(己酉, 현종十年 一六六九)에 사림(士林)들이 선생의 도학과 문장은 삼은(三隱, 三隱)

龜巖)과 병가(並駕)할 만한데도 오래도록 사전(祀典)이 없었음은 유림(儒林)의 수치라고 말하고 서원(書院)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숙종(肅宗) 정축(丁丑, 숙종 二三 一六九七)에 구암서원(龜巖書院)이라 사액(賜額)하였는데 광주(廣州)의 암사강(巖寺江)가에 있고 묘소는 광주의 치서(治西, 治西) 음촌(陰村, 諱 陰村)의 묘좌(卯坐) 유향원(西向原)에 있다. 옛날에는 표석(表石)이 있었으나 해가 오래되어 잔결(殘缺)하여 효종(孝宗) 계사년(癸巳年, 효종四年 一六五三)에 내외손(內外孫)이 힘을 모아 개수(改整)하였다. 배위(配位) 정화택주(貞和宅主)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영주 황씨(鄜州黃氏)는 석범(碩範)의 따님이다. 정묘(丁卯, 충숙왕一四년 一三二七) 四月 초五日에 태어나 정묘(丁卯, 우왕一三년 一三八七) 六月 초三日에 졸하였으니 향년 六一才요, 묘소는 합평(合寧)하였다. 三男一女를 낳아서 장남(長男) 지직(之直)은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으로 청백리(清白吏)에 뽑히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차남(次男) 지강(之剛)은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시호는 문숙(文肅)이요, 삼남(三男) 지유(之柔)는 성주 목사(星州牧使)이며 딸은 강릉(江陵) 유창(劉敞)에게 출가하였는데 유창은 이조판서(吏曹判書)에 개국 원훈(開國元勳)으로 옥천부원군(玉川府院君)에 봉(封)해져 예문관 대제학(藝文館 大提學)과 참찬(參贊)에 벼슬이 이르고 시호는 문희(文禧)이다. 선생의 자손은 번창하여 경(卿)도 되고 상(相)도 되었으며 명현(名賢)과 정사(正士)가 끊임없이 계승하였으니 이

는 선생의 후히 쌓으신 덕량(德量)과 궁곤(窮困)을 감수(甘受)하신 절조(節操)에서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겠으며 내외(內外)의 후손은 이미 비(碑)의 표문(表文)에 실려 있으므로 중복하여 말할 것이 없겠다.

아/ 선생의 세대에서 지금까지는 오백여 년이 되었고 문헌(文獻)은 여러차례 병화(兵火)를 겪어 선생의 가언(嘉言)과 의행(義行)을 하나 하나 매거(枚舉)할 수는 없겠고 다만 유고(遺稿) 중에서 간추린 말과 제가(諸家)의 집설(集說) 중에 전해진 바를 모아 행록(行錄)을 꾸미나 만분의 일도 들지 못하였고 그쳐 뒤에 오는 사람들의 고람(考覽)에 이바지하고자 할 뿐이다.

선생의 一七代孫 병순(秉巡)은 삼가 기술하다.

- 1) 연어(鳶魚) : (시경<詩經>) 대아(大雅) 한록(旱麓) 편의 「술개는 하늘 높이 날고, 고기는 못속에서 뛰는다.」(鳶飛戾天, 魚躍于淵)에서 두 자(字)를 딴 것인데 (중용<中庸>)에서 이 시귀를 인용하여 상하찰(上下察)을 말한 것이라 하였고 주(註)에서 찰(察)은 나타난다(著)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즉 하나의 이치가 유행(流行)하여 천지간에 충만하므로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의(義)를 모은 데서 생기는 것이므로 확이충지(擴而充之)하면 천지간에 가득하여 어느 곳에서나 넘쳐 흐른다는 뜻.

2. 사우 연원록(師友淵源錄)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생께서는 삼은(三隱: 鶴鳴)과 서로 친하게 사귀었고 그분들의 추중(推重)한 바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문헌(文獻)에서 족히 고증할 수가 있으니 덕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군자들과 사귀어 수 있었으며 도(道)로써 아니했다면 어떻게 군자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성인(聖人: 堯)도 정(鄭)나라에 가서는 정자산(鄭子產)과 사귀었고 위(衛)나라에 가서는 거백옥(蘧伯玉)과 벗하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을 것이다. 일찍이 포은(圃隱) 선생의 글을 상고해 보니 시는 모두 삼백 삼편이었는데 그중에서 성리(性理)에 관한 저작은 겨우 네편뿐으로 그 하나가 문촌(遁村)의 시권(詩卷)을 영탄(詠歎)하며 지은 것이었다. 여기서 선생의 학문의 조예가 참으로 깊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는데 포은(圃隱)의 이 저술이 아니었다면 백세 뒤에 이를 증명할 길이 없었을 것이니 부자(夫子: 공자)가 문헌을 중히 여겼던 것이 어찌면 이러한 까닭에서였는가!

선생께서는 여말에 태어나셨는데 일찍이 항직(亢直)한 성품 때문에 역적 신 돈을 거슬러 영표(嶺表: 嶺外)에 몸을 숨김이 사년이었고 돌아오자 얼마 안되어 묻하셨으며 또 묻하신지 얼마 만에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 동안의 변고(變故)가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평생의 저술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거의 유실되고

다만 얼마의 시고(詩稿)가 남아 있을 뿐인데 이것도 남들의 기송(記誦)에서 나온 것으로 사상의 오의(奧義)나 도학의 서론(緒論)은 열에 한둘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불행도 심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시는 충담(冲澹) 연박(淵博)하여 물욕(物慾) 밖에 초연했던 성정(性情)에서 나온 것들이었으니 학력의 정(精)함과 실득(實得)의 묘(妙)가 있지 않았다면 말로 발표된 바가 능히 이럴 수가 있었겠는가? 같은 시대의 대유(大儒)였던 포은(圃隱)선생 같은 분이 이미 우리 선생의 조예를 깊이 허여(許與)했는데 만일 사우간(師友間)에 확실한 바가 없었다면 그 영탄(詠歎)한 바가 어떻게 이리도 친절할 수가 있었겠는가?

학문의 연원(淵源)을 말한다면 선생은 안 문경공(安文敬公: 諱)의 문하에서 배우셨는데 문경공은 바로 문성공(文成公) 유(裕)의 족질(族姪)로 학문이 내력(來歷)이 있어 도은(陶隱)이 말하기를, 「안 문경의 도덕과 문장은 일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고 지인지명(知人之明)은 고인(古人)들도 미치지 못할 바가 있다. 그러기에 많은 호준(豪俊)들이 그 문하에서 나왔는데 가장 사랑하고 아낀 이는 광주의 이군(李君)이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 모(李某)는 양기(養氣)에 대하여 깊이 얻은 바가 있었는데 기론다는 것은 의리(義理)로 집약하고 도학과 합치함에 넉넉치 못하면 얻었다 할 수도 없고 깊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도의(道義)와 합치된 기품(養)을 깊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유자(儒者)의 극공(極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

가」하였다. 목로(牧老)도 일찍이 안 문경공의 묘지(墓誌)를 쓰면서 문인으로 유표하게 드러난 사람을 간추려 혹은 정사(政事)로 혹은 부도(扶道)로 들었는데 우리 선생에 있어서는 능히 황야(荒野)로 숨을 수 있었음을 허여했으니 오호라 / 숨는다(遜)는 것의 시대적 의의(意義)는 크도다. 도를 간직하고 자락(自樂)치 못할 자가 어떻게 민박(閔迫)한 생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숨는다는 것을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한 지 오래인데 유독 우리 선생만을 들어서 일컬었으니 문경(文敬)의 사문(師門)에 빛이 되겠기에 그런게 아니었겠는가. 이는 아마 공자가 이른바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으랴.(魯無君子者, 斯焉取斯, 論語, 公治長)」와 흡사한 것이리라. 그렇다면 포은이 이른바 「조장도 말고 잊지도 말게(勿助與勿忘)」나 「연어는 아득히 양양하도다(鳶魚妙洋洋: 鵞鵝談)」 둥이 참으로 지나친 칭찬이 아니었음을 알겠다. 포은의 제 찬(題贊)의 시권(詩卷)이 하나 둘이 아니로되 도체(道體)와 묘용(妙用)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한 곳이 없는데 오직 선생에게만 그 심득(心得)의 묘(妙)를 칭찬하여 「누가 감히 당할 것인가 / (孰敢當)」라고 추앙까지 하였으며 끝은 「아는 이 적다(知者少)」로 맺었으니 가히 포은(圃隱)선생이 도덕(道德)으로 서로 추허(推許: 推重許與)한 사람은 선생 하나뿐이었음을 볼 수 있겠다. 포은(圃隱)이 둔촌(遁村)을 그리워한 시에 이르기를 「때때로 이로 맞아 함께 마음을 논하고(時邀李老共論心)」라 하였고,

줄하시자 만사(萬詞)에 이르기를 「백두에 이 지심우를
 잃었구나(白頭失此知心友)」라 하였으니 우(吁)라 / 앞
 에서는 문경(文敬)의 묘지에서 상고하고 뒤에서는 포
 은의 시사(詩史)로 징병해 보면 선생의 학문과 사
 우(師友) 연원(淵源)을 가히 알 수 있겠다. 그러기에
 이조(李朝)의 성용재(成慵齋: 諱)도 그의 저서에서
 「문촌 선생의 효우의 행실은 집안에서 나타났고 충의
 의 기절(氣節)은 나라에 다했으며 학문과 재기(才器)
 는 조정에 드러나 일세의 영준(英俊)인 포, 목, 도(圃
 牧陶) 제공이 모두 서로 경중하였다」고 말했는데 용재
 는 박사(博雅)하니만큼 그 말은 족히 징신(徵信)할 수
 있겠으나 한편 사현(四賢)의 시대가 그리 멀지않아 유
 풍(遺風) 여운(餘韻)이 그때껏 남아 있었기에 입언(立
 言)하여 후세에 남김이 이토록 정녕(丁寧)하였을 것이
 다. 최 사간(崔司諫)의 시에도 「강개히 세상을 걱정하
 여 옷깃을 적셨는데, 유리 중의 효성은 유음까지 달렸
 구나(慷慨傷時淚滿襟, 流離孝懇達幽陰)」 하였으니 한
 시대의 제현(諸賢)들이 충효로 추중치 않는이 없었고
 선생의 충효의 대절은 모두 학문 속의 일 아님이 없었
 는데 문경의 학문은 높이 조두(俎豆: 제향)를 받들게
 되었고 포은의 어짙은 대동(大東)의 종사(宗師)로 받
 아들여졌으나 우리 선생의 조예는 이미 그 분들과 가
 지런하였지만 보답을 받음에 있어서는 제공들에게만
 돌아갔으니 이도 또한 선생이 세상을 숨어살면서도 후
 회치 않는 유의(遺意)에서 나온 것이었으리라. 또 포
 은의 간찰(簡札)을 보면 말에 존경을 다하여 언제나

선생이라 하였으니 향모(嚮慕)하는 마음이 간절치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는가? 심지어 「벼슬의 욕심(宦情)은 나의 즐기는 바가 아니다」라 말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학(提學)에 초배(超拜)되니 벼슬이 높아짐이 몹시 두려운데 선생만은 이 마음을 양찰하실 것이오」 하였는데 참으로 마음을 아는 사이가 아니면 필시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해로 달라지고 달마다 같지 않다」고 말한 것들은 반드시 지목한 바가 있었을 것이기에 함부로 남과 말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그러기에 선생께서 포은(圃隱)에게 보낸 시에도 이르기를, 「병객은 오로지 한 언덕 지킬 줄만 아나니, 세간의 영욕은 뜰구름 같도다. 느지막히 강해에 와보니 풍파는 사나운데, 어느 곳 깊은 물굽이에 낚시배를 떨거나」라 하였고 눈 속에 회포를 읊은 시에도 「서리를 겪은 못나무를 벌써 쇠약했는데, 추위를 견디며 청정한 건 소나무를 볼지어다. 세모에는 함께 너울거리기 기약하면서, 운수 깊은 곳에서 자작하고 있구나」라 하였으니 이로 미뤄보면 임신(壬申: 1482년)의 일을 이미 은연중 살피고 나라는 망하더라도 신복(臣僕)은 되지 않겠다는 뜻을 가졌음을 분명하게 알겠고 숨어서 정고(貞固)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엿볼 수가 있겠다. 오호라! 선생은 비록 포은과는 처지가 다르고 존몰(存歿)의 선후도 같지 않았지만 그 뜻만은 같았던 것이다.

선생의 성은 이씨이니 광주인이다. 초명은 원령(元

齡)이었는데 집(集)으로 자는 호연(浩然)이라 바꿨으며 호는 둔촌(遁村)이라 하였으니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判典校寺事)를 지내셨다. 오호라 선생은 배운 바를 펴보지도 못하셨고 지위는 덕에 따르지 못했으며 어지셨으나 장수하지도 못하셨기에 불후(不朽)라고 후세에 전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니 이것이 과연 어진 사람의 은보(恩報)라 할 수 있겠는가!

九대손 응교(應教) 필행(必行) 짓다.

註 1) 성현(成僎): 一四三九~一五〇四, 호는 용재(補齋) 자는 경숙(敬叔)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一四六二년(세조 八년)에 문과급제하여 벼슬은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이르렀으며 대제학(大提學)으로 문형록(文衡錄)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호학(好學) 박식하였고 문장 또한 뛰어나서 군자(君子)의 풍모가 있었다. 그는 허백당시집(虛白堂詩集) 등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용재총화(補齋叢話)는 조선 초기의 정치 사회 제도 문화 등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갑자사화(甲子士禍)로 부관참시(剖棺斬屍)의 참형을 당하였으며 후에 문대(文戴)의 시호가 내려졌다.

3. 묘갈문(墓碣文)

우리 이씨는 광주(廣州)를 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촌선생(遁村先生)을 일대로 모신다. 선생께서는 고려말(高麗末)에 나시어 도학(道學)을 자기의 소임으로 여겼고 문장과 지절은 일세에 으뜸이었으니 모든 전기(傳記)를 상고해 보면 날날이 알 수 있다. 일찍이 안 문경공에게 수업(受業)하셨는데 그 분의 학문은 연원(淵源)이 있어 배움을 따르는 자(從學者)가 많았으나 선생에게 도를 안다고 촉망하니 도은(陶隱)은 「사람을 알아보는 명감(明鑑)이 있다」고 안공을 칭송하였으며 목은(牧隱)은 문경공의 묘지에서 그 문인들을 열거하면서 맨 먼저 선생을 「능히 황야(荒野)에 숨을 수 있었다」고 허여(許與)하였는데 그때에 왕실은 기울어져 가고 변고(變故)는 끝이 없었으나 선생은 총과 효가 두루 지극하여 의로움이 얼굴빛에 나타났고 마음을 진작(振作)하고 성정을 참으면서 인정에 따르는 도리(情理)를 완곡(婉曲)하게 다하여 그 뜻은 금석(金石)이라도 들을 만하고 기개는 창궁(蒼穹)에라도 닿을 만하였으니 이 뒤로 수백 년을 지난다 해도 참으로 그 성인의 덕은 형용키 어려운 바가 있겠으나 돌아보건대 짤막한 글과 말이 어찌 간략한 자취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물며 일대의 명류들이 경복(敬服)치 않은 이 없었다. 포은 선생(圃隱先生) 같은 분은 동방의 백세사(百世師)가 도학으로 그의 추종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우리 선생에게만은 「맹씨의 가르침

을 조심스레 받들어 조장도 맡고 잇지도 맡게나, 천추에 이 마음이 같나니, 연어는 아득히 양양하구나(恭承孟氏訓, 勿助與勿忘, 千載同此心, 鳶魚妙洋洋)」라고 하였으니 선생의 덕의를 교도하여 이룩한 과정과 궁지에 처하던 역량(力量)을 더욱 징험할 수 있겠다.

선생의 아버지 휘 당(唐)은 본래 고을의 아전(衙前)으로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셨고 현행(賢行)이 있으셨다. 아들 다섯이 모두 통과(登科)했는데 선생은 둘째이시다. 선생의 초명(初名)은 원령(元齡)이시니 원(元)의 태정(泰定) 정묘(丁卯: 1327년)년에 나서어 지정(至正: 1351년) 七年 고려 충목왕(忠穆王) 三年 丁亥에 등계(登第: 及第한 것이다. 그러나 문종이 즉위한 것을 알면 1352년)하여 봉순대부(奉順大夫)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를 지내셨고 명(明)의 홍무(洪武: 1368년) 二十年 정묘(丁卯: 1387년)에 졸하시니 향년 六一이다. 공민왕 무신년에 역적 신돈(辛旽)을 거슬러 화가 곧 닥치게 되자 아버지를 업고 난을 피하여 고개(踰嶺)를 넘어 남으로 내려가 영천(永川)의 동년(同年)인 최원도(崔元道)의 집에서 숨어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고을의 남쪽 나현(羅峴)에 장례를 모셨다. 신돈(辛旽)이 추륙(誅戮)을 당하자 이내 돌아오셔서 이름은 집(集), 자는 호연(浩然)이라 고치고 둔촌(遁村)이라 호하셨는데 그 뜻은 목은(牧隱)이 지은 자설(字說)과 둔촌기(遁村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六년째인 임신(壬申)년에 이조(李朝)에서 혁명(革命)하여 아들은 경(卿)도 되고 상(相)도 되어

앞뒤로 줄을 이으니 선생에게 외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증직하였다. 선생의 세 아드님은 모두 등제했는데 맏이가 지직(之直)으로 직도(直道)와 청절(淸節)이 있으셨고 벼슬은 형조 참의(刑曹參議),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이며 다음 지강(之剛)은 좌참찬에 시호는 문숙(文肅)이요, 끝의 지유(之柔)는 목사이시다. 참의공의 세 아드님도 모두 등제했는데 장손(長孫)은 사인(舍人)이요, 인손(仁孫)은 우의정으로 세조를 도와 상업(相業)을 이룬 바 있었고, 시호는 충희(忠僖)이며, 예손(禮孫)은 관찰사를 지내셨다. 사인공은 아들 한 분을 두셨는데 극규(克圭)로 문과하여 병조 참의요, 청명과 직절로 세상을 울렸다. 충희공의 다섯 아드님도 모두 등제했는데 극배(克培)는 영의정으로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익평(翼平)이며, 극감(克堪)은 형조 판서로 광성군(廣城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문경(文景)이요, 극증(克增)은 관중추(判中樞)로 광천군(廣川君)에 봉해지고 시호가 공장(恭長)이며 극돈(克墩)은 좌찬성(左贊成)으로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져 시호는 익평(翼平)이요, 극균(克均)은 좌의정으로 광남군(廣南君)에 봉해졌다. 세상에서 광이(廣李)에 오자과(五子科)가 두 번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선생의 형제분과 이분들을 지칭한 말이다. 극기(克基)는 예손(禮孫)의 아드님인데 삼조참판(三曹參判)과 예문관계학(藝文館提學)으로 성리학(性理學)에精通(精通)하였다. 그 뒤로도 대대로 법도를 지켜 대마다 드러난 자손들이 있었으니 윤경(潤

慶)은 병조 판서로 덕량이 있었으며 시호는 정헌(正憲)인데 이름과 호는 명나라 사책(史冊)에도 나와 있고, 준경(浚慶)은 영의정으로 국조의 현상(賢相)으로 꼽히며 선조묘정(宣祖廟庭)에 배향됐는데 시호는 충정(忠正)이며, 연경(延慶)은 교리인데 성리학에 정통하여 학자들이 탄수선생(灘叟先生)이라 부르고 있고, 유경(有慶)은 남대 지평(南臺持平)이요, 약빙(若氷)은 이조 정랑인데 모두 극감(克堪)의 증손이 된다. 영부(英符)는 장령이요, 영현(英賢)은 참판으로 예손에게 증손이 되는데 연경(延慶), 약빙(若氷), 영부(英符)는 나란히 기묘명현(己卯名賢)에 들어 있다. 세전(世詮)은 부사로 증 예조참판이요, 세정(世貞)이 이조 참의, 도승지, 관찰사인데 극돈의 아드님이다. 덕형(德馨)은 영의정으로 목묘(穆廟: 宣祖)를 도와 중흥명상(中興名相)이 됐고 시호는 문익(文翼)인데 극균에게 오대손이 된다. 광길(光吉)은 상의정인데 극배의 현손이요, 상안(尙安)은 부사로 정묘란(丁卯亂)에 충절을 세웠고 시호는 충민(忠愍)이니 극돈의 오대손이며, 정립(廷立)은 광림군(廣林君)으로 극배의 오대손이다. 근세에 있어서는 필형(必亨)은 흥문교리요, 필영(必榮)은 좌참찬이며, 필행(必行)은 흥문응교(弘文應教)이니 모두 준경(浚慶)에게 증손이 되고, 여황(如璜)은 관찰사인데 덕형(德馨)에게 아들이 되며, 윤우(潤雨: 참의)는 예손의 육대손이요, 도장(道長)은 응교로 윤우(潤雨)의 아들이다. 선생의 뒤로 연대도 오래 됐지만 귀한 문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로 끝

하는데 그동안 과거에 급제하여 현사(顯仕)에 나가고 재열(宰列)에 오른 사람의 뒤를 이어 온 것은 이 숫자에 그치지 않지만 우선 대강 드러난 사람만 위와 같이 드는 바이다.

선생의 묘소는 광주의 치서(治西：治西) 음촌(陰村) 유향원(西向原)에 있으며, 부인은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 황씨(郢州黃氏)이다. 옛날에 단갈(短碣)이 있었으나 해가 오래되어 깎이고 부스러지니 제손들 중에 첨지 형운(亨胤), 전 현감 정망(廷望), 현령 필성(必成), 도사 지하(祉題), 부사과 도빈(道彬), 예조 정랑 휴징(休徵), 봉사 상정(象鼎), 진사 신경(信徵), 유학 두익(斗翼), 갑과 급제 원정(元楨), 진사 의징(儀徵), 생원 후징(厚徵), 승문 정자 상진(象震), 생원 건징(健徵) 등 百六十여 인과 외손에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瑩), 이조 판서 정세규(鄭世規), 사헌부 집의 송준길(宋浚吉), 세자 시강원 진선 송시열(宋時烈), 홍문 교리 윤집(尹鑣), 사헌부 장령 조속(趙諫) 등 백칠십여 인이 선생의 사적이 인멸(湮滅)로 전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새로 큰 비를 세우게 했는데 불초손인 나 휴징(休徵)에게 전달을 대충 적으라고 맡겼으나 나는 지식도 모자라고 문견도 적으니 어떻게 옛 조상의 덕(祖德)을 기술함에 당할 수 있으랴.

오호라! 선생의 도덕은 축적된 뒤에 발현(跋現)하였고, 출처(出處)의 대절은 너그러운(綽綽) 여유가 있었으며, 성망이 세워져 더욱 드러났는데 그 실천(踐

履]하신 조예(造詣)에 있어서는 포, 목, 도(圃牧陶) 제현들이 반복하여 상세히 말했으니 더 할 말이 없겠고, 거취(去就)나 행장(行藏)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에 나타나 전하여 왔고 보계(譜系)나 문벌이 들어남[地望]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오. 문장과 시귀(題詠)는 권축(卷軸)이 있기 마련이니 선생의 일은 밝기가 해와 별 같아서 백대에 두고 영원할게 아니겠는가? 그러기에 그 뿌리가 깊고 근원이 멀면 가치가 무성하고 흐름은 긴 법이니 우리가 줄곧 창대(昌大)하고 계속하여 침체(沈替)치 않는 것은 우리 조상이 여러 자손을 감싸 침체치 않게 하시는게 아니겠는가? 시(詩:詩)에 이르기를 「너의 조상이 닦은 덕을 잊지 말고 그 덕을 닦고 쌓아라.(無念爾祖, 聿修厥德)」 하였으니 불초등이 생석(牲石: 비석)을 세움에 있어서 어찌 느끼는 바가 없을 수 있겠는가!

십일대는 통훈대부 형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주판 휴정은 삼가 짓고, 승문원 정자 상진은 삼가 쓰다. 승정(崇禎) 기원 이십오년 임진(壬辰: 효종 三년) 상한에 세우다.

4. 신도비명

고려 우왕(偶王) 十三年 정묘(丁卯：一三八七)에 봉순대부 판전교시사(奉順大夫, 判典校寺事) 문촌 이 선생이 졸하니 탄생하신 충숙왕(忠肅王) 十四年 정묘로부터 춘추 예순하고도 하나가 되는 해이다. 六년 뒤인 임신(壬申)년에 이씨 조선이 사직(社稷)을 정하고 선생의 자손들은 지위가 경상(卿相)에 이르니 추은(推恩)하여 선생에게 의정부 좌찬성이 주어지고 현종 기유(己酉：一六六九)년에는 광주의 구암서원(龜巖書院)에 봉향됐는데 묘소는 광주(廣州)의 서쪽 읍촌 유향원(西向原)에 있다. 부인 정화택주(貞和宅主) 영주 황씨(郢州黃氏)는 석범(碩範)의 따님인데 부장(祔葬)하였다.

옛날부터 단갈(短碣)¹⁾이 있었으나 해가 오래되어 부스러지니 인조 임진(壬辰：一六五二)년에 후손들이 그대로 인물(湮沒)되어 전하지 못할까 걱정하여 개수(改鑿)²⁾ 하였으니 글은 이조 정랑 휴징이 찬하였었다. 지금부터 임진년까지는 벌써 三百三十여 년이 됐는데도 아직껏 수도(隧道：神道)의 비가 없었으니 대종회(大宗會)에서는 선생의 사적을 수집하여 부족한 나에게 명(銘)³⁾을 부탁하게 되었다.

선생의 초휘(初諱)는 원령이요, 자는 성로(成老)이며 호는 묵암자(墨巖子)라 하였다. 황고(皇考：父) 휘 당(唐)은 광주의 향리(鄉吏)로 국자 생원(國子生員)⁴⁾이 됐는데 광주는 본관이다. 선생은 일찍이 안 문경

공(安文敬公) 보(輔)에게 배웠는데 문경공이 매우 사랑하고 아껴 거친 세상에 능히 피해 숨을 인물이라 하였으며 이 익재 제현(李益齋齊賢)도 자주 칭찬하였다. 충목왕 정해(丁亥：一三四七)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경서(經書)의 뜻에 밝다고 일컬어졌으며 벼슬은 합포 종사(合浦從事)⁵⁾에서 비롯하여 관전교시사(判典校寺事)⁶⁾에 이르렀다. 일찍이 송경(松京：開城)에 있을 때 신돈(辛旽)의 문격 채가(蔡哥)와 한 마을에 살았었는데 선생은 본디 신돈(辛旽)을 심히 미워하던 터라. 중인(衆人) 앞에서 그의 죄를 논척(論斥)한 바 있었다. 무신(戊申：一三六八)년에 이르러 화가 크게 미치려 하여 부친을 등에 업고 가족을 이끌며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재를 넘어 영양(永陽：永川)에 이르니 최사간 원도(崔司諫元道)가 숨겨 주었고 기유년에 생원공이 몰하니 최공은 빈엄(殯殮) 일체를 친상(親喪)과 다름없이 마련해 주었다. 신해(辛亥：一三七一)년에 신돈이 복주(伏誅)되자 송도로 돌아와 이 도은 승인(李陶隱崇仁)에게 이르기를 『지금 나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어찌 이름만 옛것을 쓸 수 있겠는가?』하고 이름과 자, 호를 일시에 고쳐 이름은 집(集),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그 뜻은 이 목은 색(李牧隱穡)의 둔촌기(遁村記)⁷⁾와 정 포은 몽주(鄭圃隱夢周)의 둔촌권자(遁村卷子)⁸⁾, 정 삼봉 도전(鄭三峯道傳)의 둔촌자후설(遁村字後說)⁹⁾ 등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윽고 세상의 소모(所慕)에서 마음을 끊고 황여(黃驪：驪州)의 천녕강(川寧江)가

에 우거(寓居)하였는데 목은의 침류정(枕流亭), 김 척약 구용(金揚若九容)의 육우당(六友堂)과는 서로 가까워 조석으로 대화하면서 만년을 보냈다.

선생은 사람됨이 강개(慷慨)하여 말씨는 폐부(肺腑)를 찢었고 행실은 우뚝하여 절의(節義)로 자허(自許: 自負)하였는데 목은, 포은, 도은과는 도의로 사귀어 명성이 비등하였고 또 오촌(五村)¹¹⁾, 팔청(八淸)¹²⁾, 구일(九逸: 遺事編參照)¹³⁾의 일컬음에도 두루 들어 있으니 오! 성할진저!

문장을 짓는 데에도 정련(精鍊)하여 충담(冲澹)한 필치(筆致)가 있었지만 더욱이 시에 장재(長才)가 있어 여러 형태에 두루 능하였다. 조 적암 신(曹適菴伸)은 유아(儒雅)하고 조감(藻鑑: 藻鑑)이 있었는데 일찍이 동방의 절창(絶唱)을 역거(歷舉)하면서 선생의 시에 이르러서는 『향불 피우며 세상의 태평을 빌고, 밥상 대하면 풍년을 빈다(焚香祈道泰, 對食願年豐)』를 혼후(渾厚)하다 하였고, 『느지막히 강태¹⁴⁾에 나와보니 풍파가 사나운데, 어느 곳 깊은 물굽이에 낚시배를 땀거나(晚來江海風波惡, 何處深灣繫釣舟)』는 침통(沈痛)하다 하였으며, 『기다려 배에 가득히 가을달 실고, 즐겁게 긴 피리 불면서 강루를 지나노라(待得滿船秋月白, 好吹長笛過江樓)』는 호장(豪壯)하다 하였고, 『어찌 하면 이웃하여 두 늙인이, 살구꽃 봄비 속에 짝지어 밭갈아 볼까(安得卜隣成二老, 杏花春雨耦而耕)』는 한적(閑適)하다 하였으며, 『여윈 말은 석양에 울부짖고, 파리한 아이는 삭풍을 등겼구나(瘦馬鳴西日, 羸童背朔

風)』는 고담(枯淡)하다 하였는데 이 또한 지언(知言 : 知言은 지언(知言)이라 하겠다. 다만 여러 차례 병화(兵火)를 겪다가 무지개와 놀빛같이 빛나는 시문이 거의 다 사라졌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들 세 분을 두어 모두 등제(登第)했으니 말이의 지직(之直)은 형조 참의, 보문각(寶文閣) 직제학이요, 다음 지감(之剛)은 좌참찬에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끝의 지유(之柔)는 성주(星州) 목사이다. 직제학의 삼남도 모두 등제했는데 장손(長孫)은 사인(舍人)이요, 인손(仁孫)은 우의정에 시호는 충희(忠僖)이며, 예손(禮孫)은 관찰사(觀察使)이다. 문숙(文肅)의 일남은 맹손(孟孫)이며 통사랑(通仕郎)이다. 목사는四名을 두었는데 일원(一元)은 예빈시정(禮賓寺正)이요, 중원은 판결사(判決事)요, 정원(貞元)은 이조정랑이요, 계원(季元)은 생원이다. 사인의 일남은 극규(克圭)이니 문과 병조 참의(兵曹參議)이다. 충희(忠僖)의 오남도 모두 등제했는데 극배(克培)는 영의정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시호는 익평(翼平)이요, 극감(克堪)은 형조 판서 광성군(廣城君)에 시호는 문경(文景)이며, 극증(克增)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광천군(廣川君)에 시호는 공장(恭長)이요, 극돈(克墩)은 좌찬성 광원군(廣原君)에 시호는 역시 익평(翼平)이며, 극균(克均)은 좌의정 광남군(廣南君)에 사시(私謚)는 충민(忠愍)이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광이(廣李)에는 오자과(五子科)가 두 번이나 있었다』 함은 선생의 형제분과 이분들을 가리켜 한 말이다. 관찰은 二남을 두었는

데 극기(克基)는 예조 참판(禮曹參判)이요, 극견(克堅)은 좌통례(左通禮)이다. 통사랑의 일남 극령(克齡)은 홍원 교수(洪原教授)요, 예빈시정은 이남을 두어 극간(克幹)은 상장이요, 극곤(克坤)은 경기 우수사(京畿右水使)이다. 관결사는 이남을 두었으니 상장 극량(克良)과 극인(克仁), 극공(克恭)이다. 정랑은 이남을 두어 극창(克昌)은 첨중추(僉中樞)요, 극준(克駿)은 순천 군수이며, 생원의 일남 극보(克輔)는 상장이다.

그 뒤로도 대를 이어 이름 있는 자손들이 많았으니 판중추부사 광양군(廣陽君) 세좌(世佐), 교리(校理) 연경(延慶), 병조 판서(兵曹判書) 정헌공(正獻公) 윤경(潤慶), 영의정 충정공(忠正公) 준경(浚慶), 영의정 문익공(文翼公) 덕형(德馨), 공조 참의 윤우(潤雨), 우참찬 한남군(漢南君) 필영(必榮), 이조 판서 문익공(文翼公) 원정(元稹), 공조 판서 하원(夏源), 이조 판서 의익(宜翼) 같은 분은 그중에서도 더욱 드러난 분들이다. 오! 변성도 하였도다! 명하기를,

고려와 조선이 바뀔 즈음엔, 천지가 어지럽기도 하였지. 송악(松嶽)을 바라보니, 그 번화(繁華) 꿈만 같구려. 탁락(卓樂)한 문옹(通翁)은, 중천에 높이도 날았도다. 목은, 포은, 도은 그리고 척약재와 더불어 백중(伯仲)을 이뤘다네. 어진 스승 말씀이 있나니, 『능히 황야에 은둔(隱遯)할 수 있을거라』고. 둔(遜)의 뜻이 적은 것 아니어늘, 어찌 쉽게 말했겠는가. 중(僧) 신훈을 꾸짖어, 깊은 울분 쏟았으나 그놈의 양값을 만나서,

영남땅에 숨었다네. 신돈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니, 하늘이 탄망히 여겨 도우심이라. 흙사 다시 태어남과 같은데, 이름만은 옛것을 쓸 수야 있는가. 곧고 모질게 오래도 견뎠나니, 빙월(氷月)처럼 맑고 투명하도다. 황려강(黃驪江) 위에는 시혼(詩魂)이 길이 머무르니, 혹은 혼후(渾厚)¹⁾하고 혹은 호장(豪壯)²⁾하며, 혹은 고담(枯淡)³⁾하고 혹은 한적(閑適)한데 인간 세상에 흘러내려 무지개처럼 푸르고 달빛보다 희구나. 음촌(陰村)의 언덕은, 울창한 유택(幽宅)인데. 문장과 지절(志節)로 높다랗게 사적을 남겼네. 학문은 베들어 보지 못했고, 지위는 그 덕에 걸맞지 않았으나 그 후손 번창하니, 이로써 불식지보(不食之報) 같음이라. 명경(名卿)과 홍유(鴻儒)들, 크고 크게 돕고 도우니(航航翼翼), 왕국(王國)의 동량(棟樑)이요, 사림(士林)의 전칙(典則)이었도다. 드디어 온 나라에서 광이(廣李)를 일컫게 됐는데 어찌 감히 잊으리오, 선조의 미덕 있었음을. 이에 큰 비 다듬나니, 옛 법을 그대로 따르는구나. 나의 명은 아침이 아니오라, 오는 천 년에 알리려 함이로다.

문학 박사 진성(眞城) 이 가원(李家源) 근찬(謹撰)

註 1) 短碣: 높이가 짧고 갖이 없는 墓碑.

2) 改豎: 옛날 碑石을 새로 갈아 세우는 것.

3) 銘: 碑文中에 事蹟內容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讚評하여 쓰는 核心的인 結句.

4) 國子生員: 高麗朝時代의 生員 李朝의 成均館進士 또

- 는 生員과 같음.
- 5) 合浦從事: 合浦(지금의 昌原)에 倭寇 토벌차 官員으로 從事한 일.
 - 6) 判典校寺事: 典校寺는 高麗의 秘書監으로 判事는 正三品임.
 - 7) 通村記: 號를 通村으로한 來歷을 밝히는 글.
 - 8) 通村卷子: 號를 通村으로한 意義를 밝힌 詩卷.
 - 9) 通村字後記: 通村의 字(浩然)에 對한 글.
 - 10) 五村: 通村, 杏村, 漁村, 桑村, 陽村(有名한 志士분들).
 - 11) 八清: 通村, 惺若齋, 貞齋, 松堂, 石灘, 龍岩, 貞齋 德谷(清廉潔白한 志士로 꼽는 여덟 분).
 - 12) 九逸: 通村, 李石灘養中, 徐衿川甄, 吉治隱再 元耘谷天錫 崔晚六瀆 李大隱裕, 閔思菴愴, 李處士菴(隱逸居士로 꼽는 분들).
 - 13) 江海: 江과 바다인데 여기서는 世上을 뜻함.
 - 14) 渾厚: 德이 있어 圓滿하고 人情이 두터움.
 - 15) 豪壯: 豪傑스럽고 氣慨가 壯한 것.
 - 16) 枯淡: 달달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5. 유고 서문

지난날 나는 둔촌선생을 포은선생(圃隱先生)의 소헌(小軒)에서 처음으로 뵈었는데 선생이 막 역적 신돈(辛旽)의 화(禍)에서 벗어나 남방(南陽)에서 올라오신 무렵이었다. 선생의 용모(容貌)는 장중(莊重)하고 강의(剛毅)해 보였으며 기품(氣品)은 꼭 짜이면서 준수하였고 음성(音聲)은 옥이 구르는 듯 하면서 명확하고 유창(流暢)하여 나는 내심 몹시 기이(奇異)하게 느꼈었다.

두번째는 목은선생(牧隱先生)의 초창(草廠: 齋)에서 뵈었는데 목은선생께서는 경의(敬意)를 갖고 대하면서 다음날까지 함께 지내시기에 나는 곁에서 그 여론(餘論)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에 곧 도은(陶隱)께서 목은·포은·둔촌을 초대하여 간략한 술자리를 마련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분매(盆梅)를 앞에 놓고 매화(梅花)를 주제로 연귀(聯句: 對聯)를 지었는데 나도 말석(末席)에 참여하여 그 분들의 경귀(警句: 警句)를 들었다.

뒷날 나는 연정동(硯井洞)으로 이사했는데 용수산(龍首山)아래에 있는 둔촌의 초정(草亭)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 선생께서 나에게 국화시(菊花詩) 한 수를 지어 주시기에 나도 삼가 화답을 했는데 이로 인하여 다행히도 상종하고 싶었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얼마 후에 둔촌께서는 병으로 세상을 떠셨고 그 뒤 십여 년 동안에 포은과 도은도 연이어 세상을 떠났으

며 목은선생마저 이승을 하직하고 홀로 나만이 아직껏 남아 있다. 이제와서 대양 지난날 상종하던 즐거움을 생각하면 어렴풋이 꿈속의 일만 같이 느껴진다. 아! 이 슬픔을 어찌 할거나!

삼은(三隱: 목은·포은·도은)의 시문(詩文)은 모두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데 둔촌의 시문만이 그렇지 못하여 몹시 안타까워 하였더니 이제 선생의 아들 형조참의(刑曹參議) 지직(之直)이 선생의 유고를 안고 와서 내게 보이며 말하기를 『나의 선인(先人)께서는 배우신 바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벼슬이 높지 못하였고 뜻하신 바를 행하고자 하였으나 수한(壽限)이 길지도 못하였습니다. 불肖 고(不肖 孤)는 그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입신 양명(立身揚名)하여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 도리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불肖한 이 사람이 어찌 감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나 하겠습니까? 다만 남기신 이 몇 백편의 글을 간행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뒤에 오는 상론지사(尙論之士)로 하여금 선인의 이름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오니 바라건대 선생께서 이 책 머리에 서문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으며 하루종일 그 시를 읽어보았는데 앞서 말한 그대로 딱 짜이면서 준수하고 옥을 굴리는 듯하면서 명확하고 유창스러움이 모두 그 성률(聲律: 시부(詩賦)) 속에 나타나 있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시란 거짓으로 지을 수 없다』 하

였는데 이 말이 어찌 허언(虛言)이겠는가?

문촌께서는 세 아들을 두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문행(文行)으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참의(參議)는 그 장자(長子)로 정성을 다하여 그 아버지의 미덕(美德)을 드러내고 이름을 전해드리기에 전념(專念)하니 그 뜻 또한 높이 살 만하다 하겠다.

영락 팔년(永樂：1416년) 경인(庚寅) 칠월에 진양(晉陽) 호정(浩亭) 하륜(河崙)은 삼가 서하다.

註 一) 하륜(河崙：一三四七~一四一六)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이다. 一三六五年(공민왕 一四) 문과급제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재임시에 신돈(辛旽)의 비행을 공박하다가 미움을 사서 지영주사(知榮州事)로 좌천되었다. 좋은 치적(治績)을 쌓고 고공과랑(考功佐郎)등 여러 벼슬을 거쳐서 참서밀직사(參書密直事)가 되었으며 조선조 개국 후에는 좌우 정승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로 태조실록의 편찬을 지휘하였다. 좌명공신(佐命功臣) 일등(一等) 진산부원군(晉山府院君)에 봉(封)해졌다. 계룡산(鷄籠山) 천도를 반대하고 한양 천도를 적극 주장했었으며 태조 五年에 가서 계룡사(計稟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다. 시문(詩文)에 능하고 천문지리(天文地理)에도 정통했다. 시호(諡號)는 문충(文忠)이다.

주제(主題)발표 논문(論文) (I)

道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발표 : 민병하(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조병로(경기대학교 교수)

通村先生の 性理學的 地位

민병하(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 序 言
2. 通村의 性理學的 地位
3. 通村과 麗末의 性理學者
4. 通村의 學行
5. 結 語

1. 序 言

通村 李集先生은 高麗末期의 新進士類이고 性理學者였다. 通村은 어느 官職보다는 學德을 쌓고 志節을 지키는 데에 보다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本論은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하여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그 내용을 1. 通村의 性理學的 地位 2. 通村과 麗末의 性理學者 3. 通村의 學行을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通村의 性理學的 地位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高麗後期에 受容되면서 高麗末期에 定着하기 시작하였는데, 通村은 바로 이 시기의 性理學者가 되나, 그 학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通村이 차지하는 性理學的 地位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通村과 麗末의 性理學者에 있어서는 通村과 麗末의 性理學者들과의 교분관계를 밝힘과 아울러 麗

末의 性理學者들이 遁村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高麗末期에 있어서는 遁村의 性理學的 地位를 한층 더 具體化해 보고자 한다. 또 遁村의 學行에 있어서는 遁村의 學德을 쌓기 위한 정열과 志節을 지키기 위한 신념 등을 밝힘과 아울러 그 實踐的 측면을 밝힘으로써 遁村의 學問像, 人間像을 再照明하고자 한다.

2. 遁村의 性理學的 地位

遁村 李集先生이 생존하던 시기는 高麗末葉에 해당되어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性理學이 受容되어 그것이 定着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宋學인 性理學이 高麗에 受容되기 시작된 것은 高麗後期로서 高麗史에 보면 「白頤正이 天資가 純厚하여 公輔의 器量이 있었다. …때에 程朱의 學(性理學)이 처음 中國에서 행하여 아직 東方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頤正이 元에 있으면서 이것을 배워 東方으로 돌아오니, 李齊賢·朴忠佐가 제일 먼저 師受하였다.」¹⁾라고 되어 있고, 또 白文寶가 쓴 白頤正의 行狀에 보면 白頤正은 일찍이 安珣의 門下에서 수학하였고, 忠宣王을 따라 元都에 가서 10년간 체류하였다가 程朱全書를 구하여 와서 同門 4, 5인과 함께 이를 탐구하였다고 되어 있다.²⁾

이와 같은 高麗史의 기록이나 그의 行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性理學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白頤

正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白願正은 高宗 47년(1247)에 출생하여 忠肅王 10년(1323)에 세상을 떠났는데, 호는 釋齋, 본관은 藍浦로 아버지는 國學大司成과 寶文閣學士를 지내고 志節로 알려진 白文節로서 벼슬은 僉議評理, 商議會議都監事를 지냈고 뒤에 上黨君에 봉해 졌다.³⁹

그러나 우리나라에 性理學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인물은 일반적으로 安珣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高宗 30년(1243)에 출생하여 忠烈王 32년(1306)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初名은 裕이고 자는 士蘊, 호는 晦軒, 본관은 順興으로 아버지는 州吏로서 醫業으로 出身하여 密直副使로 致仕한 安孚이다. 그는 어릴적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文科에 급제한 후 내외 要職을 거쳐 僉議中贊으로 致仕하였는데, 그는 특히 學校가 날로 쇠퇴하여 짐을 근심하여 兩府(宰樞)와 의논하여 品官으로 하여금 銀布를 내게 하되, 그것을 養賢軍에 돌려 일종의 育英財團인 瞻學錢을 설치케 하여 養士에 資케 하는 한편, 金文鼎 등을 元에 보내어 孔子와 70弟子의 像과 祭器, 樂器를 구하여 오게 하여 文廟에 제도를 충실케 함과 아울러 6經, 諸子, 史를 구하여 오게 하여 敎學을 진흥케 하였다.⁴⁰

이러한 敎學振興策의 성과는 새로운 학문인 性理學을 수용하는 데에 적절한 輿件이 조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의 性理學에 대하여는 晦軒實記의 晦軒先生年譜에 「庚寅 忠烈王 16년에 燕京(北京)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朱子書를 얻어 보고 마음으로 지극히 좋아하여

이는 孔門의 正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끼어 쓰고 또, 孔子와 朱子의 眞像을 그리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高麗史 列傳 安珦條에는 「그는 晩년에 항상 晦庵先生(朱子)의 眞像을 걸고 景慕하였으며 쓰디어 스스로의 號를 晦軒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는 性理學에 상당히 접근하고 신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性理學者로 꼽게 되는 것이다.

그는 元으로부터 征東行省員外郎 및 郎中, 高麗儒學提舉에 임명되어 忠烈王 15년에 王과 公主를 호종하여 元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는데, 이때 元京에서 朱子 全書를 手書하여 가지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며, 忠烈王 24년에 忠烈王이 복위하고 忠宣王이 元에 가자 忠宣王을 따라 元에 갔다가 돌아오는 등 元과의 접촉이 많았었다. 그의 諡號는 文成이고 忠肅王 6년에 文廟에 從祀되었으며,⁹⁾ 朝鮮時代에 들어 紹修書院을 비롯하여 長湍 臨江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위의 安珦과 白頤正의 경우를 검토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 性理學을 전래하고 그를 신봉한 최초의 인물은 安珦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신봉하고 전파한 인물은 白頤正인 것으로 볼 수 있다.

白頤正은 安珦의 門人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性理學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된 데는 安珦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하여 白頤正은

元京에 들어갔다가 朱子全書를 구하여 오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에 적극적이었으며 그것을 다시 門下에게 전수하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한편 白願正이 元京에서 朱子全書를 구하여 오고 그것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그 체류기간이 10년이 되었다는 점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10년의 체류기간은 그가 忠宣王을 따라 元에 간 것이었으므로 그 시기는 忠宣王이 忠烈王 24년에 즉위하였다가 물러난 뒤 元에 가서 10년간 있다가 忠烈王 34년에 재즉위한 바로 그 10년간으로 보이는 것이나, 이 白願正이 고려에 돌아온 시기는 安珦이 元에 갔다가 朱子全書를 手書하여 가지고 돌아왔다는 시기에 비하여 근 20년이 뒤지는 것이다.

이렇게 安珦, 白願正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性理學은 고려에서 새 학문으로 박을 트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師弟間 또는 先後輩間을 통하여 활발한 傳受作業이 행해졌으며, 이 밖에 個人에 의하여 元과의 접촉 또는 연구를 통하여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말기에는 性理學이 新進士類(新興士大夫)에게 영입되어 새로운 학문으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

性理學 영입에 큰 역할을 한 白願正 그리고 權溥 등이 모두 安珦의 門人이었으므로 그들이 性理學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安珦의 영향이 컸을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白願正은 元에서 程朱學(性理學)을 연구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李齊賢·朴忠佐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제일 먼저 가르쳤다는 것이고 그 가르침은 위의 두 사

람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李穀·白文寶·李仁復 등이 또한 그의 門下이었으므로⁸⁾ 그들도 역시 그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白頤正과 함께 安珦의 門人이며 초기 性理學 수요에 공이 큰 權溥는 元宗 2년(1262)에 출생하여 忠穆王 2년(1346)에 세상을 떠났는데, 初名은 永이고 자는 齊萬, 호는 菊齋, 본관은 安東으로 아버지는 贊成事 權珣이다. 그는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여 要職을 두루 거친 뒤 領都僉議司事가 되었고 永嘉府院君에 推誠翊贊同德輔理功臣이 되었으며, 사신으로 재차 元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그의 性理學에 대하여 高麗史에 「그는 일찍이 建白하여 朱子の 四書集註를 간행하니 東方의 性理學이 權溥로부터 시작되었고, 銀臺集 二十卷을 註釋하였으며, 또 이를 權準과 함께 歷代孝子 六十四人을 聚集하여 사위인 李齊賢으로 하여금 贊을 짓게 하여 이름을 孝行錄이라 하니 世上에 행하였다」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왕에게 청하여 朱子の 四書集註를 간행하여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평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는 性理學의 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孝를 권장하기 위하여 아들 權準과 함께 역대 孝子를 취담하여 孝行錄을 펴내어 性理學의 실천자적 역할도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 權溥의 門下로 사위인 李齊賢을 비롯 李穀·白文寶·李仁復 등을 꼽는데,⁸⁾ 그들이 性理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에서 주목되는 것은 李齊賢·李穀·白文寶·李仁復 등이 權溥의 門人이면서 白頤正의 門人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정은 朝鮮時代와 같이 學者間에 과별이나 감정의 대립이 날카롭지 않았으므로 師弟關係를 폭넓게 설정할 수 있었다. 吉再의 예만 보더라도 李穡·鄭夢周·權近의 門에서 受學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白頤正과 權溥는 모두 安珦의 門人이었으므로 그들의 門下로서 人脈이나 學脈에 있어서 부자연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모두의 門下가 되어 또 한 부자연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들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 가운데 李齊賢은 忠烈王 13년(1287)에 출생하여 恭愍王 16년(1367)에 세상을 떠났는데, 初名은 之公이고 자는 仲思 호는 益齋·實齋·樸翁, 본관은 慶州, 아버지는 檢校政丞 李瑄이고 權溥의 사위이다. 그는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여 內外要職을 거쳐 벼슬이 門下侍中에 이르러 致仕하였고, 忠肅王때 端誠翊贊功臣·推誠亮節功臣에 金海君이 되었다가 恭愍王때 同德協議贊化功臣에 鷄林府院君이 되었으며 諡號는 文忠이다.⁹⁾ 朝鮮時代에 들어 慶州의 龜岡書院, 金泉의 道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그는 白頤正의 門下에서 朴忠佐와 함께 性理學을 수학하였고, 또 그는 權溥의 사위이며 門下로서 일찍부터 性理學에 접하였다. 특히 忠宣王이 忠肅王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元京에 가서 萬卷堂을 세우고 元의 名儒 姚燧·闕復·元明善·趙孟頫 등과 함께 書와 史를 즐겼는데, 이때 忠宣王이 李齊賢을 불러들여 이들 元의

名儒들과 상종케 함으로써 그의 학문적 진취는 물론, 性理學에 대한 조예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만년에 왕명을 받아 實錄을 편찬하였고, 性理學에서 중요시되는 孝經과 四書를 중요시하는 등 당대의 名文章家일 뿐만 아니라 性理學의 중추적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역시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인 李毅은 忠烈王 24년(1298)에 출생하여 忠定王 3년(1351)에 세상을 떠났는데, 初名은 芸白이고 자는 中父, 호는 稼亭, 본관은 韓山, 아버지는 韓山君吏 李自成이고 李穡의 아버지이다. 그는 胥吏로서 文科에 급제하고 元의 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政堂文學을 거쳐 都僉議贊成事に 이르러 韓山君에 봉해졌고, 元의 벼슬로 翰林國史院檢閱·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郎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諡號는 文孝이다.¹⁰⁾ 朝鮮時代에 들어 韓山의 文獻書院 寧海의 丹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그는 스승 白頤正과 權溥를 통하여 일찍부터 性理學에 접근하였을 것이고, 그 자신 元의 制科에 급제하여 元의 벼슬을 지내고 元의 學者들과 접촉도 많았으므로 이를 통하여 性理學의 학문적 진전이 컸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性理學 受容期의 性理學者로서 그 위치가 컸었는데 그는 文章에 능하여 元에서도 귀히 여겼으며, 왕명을 받아 李齊賢 등과 함께 忠烈王·忠宣王·忠肅王 3代の 實錄을 편찬하였다.¹¹⁾

또한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인 白文寶는 忠烈王 29년(1303)에 출생하여 恭愍王 23년(1374)에 세상을 떠

났는데 자는 和父, 호는 淡庵, 본관은 稷山이다. 그는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政堂文學에 이르러 稷山君에 봉해졌으며 諡號는 忠簡이다.¹²⁾ 그는 白頤正의 門下에서 수학하였고 權溥와 禹倬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李穀과 함께 李齊賢을 座主로 하여 登第하였으므로 이러한 師弟間, 座主門生間, 同僚間을 통하여 性理學에 대한 조예를 크게 넓혔을 것이다. 또 그는 文章을 잘하였고 異端에 의혹되지 않았으며 檀君紀元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

역시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인 李仁復은 忠烈王 34년(1308)에 출생하여 恭愍王 23년(1374)에 세상을 떠났는데, 자는 克禮, 호는 樵隱, 본관은 星州 아버지인 兪校侍中 李襄이고 할아버지는 星山君 李兆年이며 李仁任의 형이다. 그는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고 元의 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贊成事를 거쳐 檢校侍中에 이르렀고, 星山君에 봉해졌다가 興安府院君에 봉해졌으며, 元의 벼슬로 征東行省都事, 征東行省左右司郎中 등을 역임하였고 諡號는 文忠이다. 그는 일찍부터 白頤正 등 스승을 통하여 性理學에 접근하여 그에 밝았으며, 왕명을 받아 忠烈王·忠宣王·忠肅王 3代の 實錄을 편찬하였고 古今錄과, 金鏡錄을 수찬하였다.¹³⁾

위에서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로 알려진 李齊賢·李穀·白文寶·李仁復에 대하여 性理學的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이라 할 것은 白頤正과 權溥의 門下라는 점, 性理學受容期の 性理學者라는 점, 高麗末葉의 新進士類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性理學은 安珮으로 부터 시작하여 白頤正·權溥로 이어지고, 다시 李齊賢·李穀·白文寶·李仁復으로 이어지면서 그 학문적인 기반이 성립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安珮을 정점으로 한 門下關係를 중심으로 하여 들은 것일 뿐, 性理學受容期에 있어서 그 학문적 역할을 한 인물의 전부가 아닌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白頤正과 비슷한 연배인 閔漬라든가 權溥와 같은 연배인 禹倬 등도 性理學受容期에 있어서 性理學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들이다. 閔漬(高宗 35년, 1248에 출생하여 忠肅王 13년 1326에 卒去)는 文科에 壯元及第하여 벼슬이 僉議政丞에 이르러 驪興君에 봉해졌고, 忠宣王이世子때 그의 師傅로서 元에 들어가 元의 벼슬 翰林直學士를 역임하였으며 왕명을 받아 權溥와 함께 鄭可臣의 千秋金鏡錄을 증수하여 世代編年節要를 만들었고, 또 本國編年綱目을 편찬하였다. 諡號는 文仁이다.¹⁴⁾

그리고 禹倬(元宗 4년, 1263에 출생하여 忠惠王 복위 3년, 1342에 卒去)은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成均祭酒에 이르러 致仕하였는데, 高麗史 그의 列傳에 「程傳(性理學書)이 처음으로 東方에 오매 능히 아는 자가 없는데, 禹倬이 문을 닫고 月餘間 연구하여 이에, 해독하고 生徒를 교수하니 理學(性理學)이 비로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바로 그로부터 전파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性理學 수용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性理學은 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安珮

에 이어 白頤正·權溥로 다시 李齊賢·朴忠佐·李穀·白文寶·李仁復으로 이어지면서 도입 전수되어 차츰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시기의 학자로는 高麗末期의 性理學者인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陶隱 李崇仁의 三隱을 비롯하여 楊若齋 金九容, 陽村 權近, 治隱 吉再, 三峯 鄭道傳 등을 들 수 있는데, 遁村 李集先生도 이 시기의 性理學者로서 三隱 및 金九容 등과 두터운 교분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性理學의 정착에 공헌이 컸다.

遁村은 李公遂, 安輔와 座主門生 관계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座主 李公遂, 安輔의 신망을 가장 많이 받던 門生이기도 하였다. 즉 遁村은 恭愍王 4년에 贊成事 李公遂를 知貢舉로 하고 密直提學 安輔를 同知貢舉로 하여 文科에 급제하였는데,¹²⁾ 李崇仁은 陶隱集 送李浩然赴合浦幕序에서 『李文忠公(李公遂)과 安文敬公(安輔)은 모두 道德과 文章이 한 시대의 師表로서 사람을 알아보는 그 밝은 눈, 그리고 선비를 구하는 데에 급한 마음은 비록 옛사람이라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모든 豪傑과 英俊이 그 門下에서 나왔는데, 이 두 분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廣州의 李君(遁村을 가리킴)인 것이다.』

라 하여 遁村은 座主 李公遂, 安輔가 여러 門生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門生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李公遂(忠烈王 34년, 1308에 출생하여 恭愍王 15년,

1366에 卒去)는 文章에 이름이 높아 일찍이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贊成事를 거쳐 領都僉議에 이르렀고 益山府院君에 推忠守義同德贊化功臣이 되었는데, 元의 벼슬로는 元에 있으면서 太常禮儀院使를 지냈고 諡號는 文忠이다.¹⁶⁾ 그는 위의 李崇仁이 陶隱集에서 말한 것과 같이 道德과 文章에 있어서 한 시대의 師表였다. 그리고 安輔(忠烈王 28년, 1302에 출생하여 恭愍王 6년, 1357에 卒去)는 安輔의 아우로서 文科에 급제하고 元의 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政堂文學에 이르렀고, 元의 벼슬로는 元에 있으면서 遼東行中書省照磨兼承發架閣庫를 지냈는데, 그는 李穀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품이 剛直廉潔하여 生産을 일삼지 않았으며 諡號는 文敬이니,¹⁷⁾ 위의 李崇仁이 陶隱集에서 말한 것과 같이 李公遂와 함께 道德과 文章에 있어서 한 시대의 師表였다.

이렇게 遁村은 座主 李公遂, 安輔의 각별한 사랑과 아낌을 받았으며, 性理學이 정착하기 시작하던 高麗末期의 性理學者들로부터도 아낌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특히 三隱 李穡, 鄭夢周, 李崇仁과는 교분관계가 각별히 두터웠고 그들의 각별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高麗末期 性理學界에서의 遁村의 地位를 말하여 주는 것이 된다. 즉 遁村은 性理學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高麗末期에 있어서 중추적인 性理學者였던 것이다.

本節의 마지막으로 三隱을 중심으로 遁村과 각별한 교분관계가 있었던 性理學者들의 약력을 들여보면 다

음과 같다. 牧隱 李穡(忠肅王 15년, 1328~朝鮮太祖 5년, 1396)은 李穀의 아들로써 恭愍王 2년에 知貢舉 李齊賢, 同知貢舉 洪彦博 아래 文科에 壯元及第하였고, 이듬해 元의 制科에 응시하여 또한 급제하였다. 벼슬은 翰林學士, 成均大司成, 政堂文學, 判三司事 등을 거쳐 判門下事に 이르렀고 文忠保節同德贊化功臣에 韓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元의 벼슬로는 應奉翰林文字承仕郎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 征東行中書省儒學提舉 등을 역임하였고 시호는 文靖이다.¹⁰⁾

그는 아버지 李穀이 元에서 벼슬하였으므로 朝官의 아들로써 國字監의 生員이 되어 性理學을 연구하였고, 成均大司成으로 있을 때는 新進氣靚한 선비 金九容, 鄭夢周, 朴尙衷, 朴宜中, 李崇仁을 가리어 教官을 겸하게 함으로써 成均館 教育이 크게 떨치고 性理學이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高麗史 그의 列傳에 「詩文을 지움에 붓을 잡으면 곧 써서 조금도 막힘이 없으며 힘껏 後學을 밀어 斯文을 일으킴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으니 學者들이 모두 우러러 사모하였다.」라 하였듯이 文章을 잘하여 그의 文章은 朝鮮時代 전부의 文章을 합하여도 대적할 수 없다는 評을 받을 정도였고, 後學 육성에 힘을 기울여 權近, 吉再, 鄭道傳 등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性理學의 정착에 巨步的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李成桂 세력에 반대하여 李成桂가 독세하자 流配生活를 거듭하다가 朝鮮時代에 들어 韓山伯에 봉해지고 出仕를 권유받았으나 끝내 사양하였으며, 뒤에 長湍의 臨江書院, 淸州의 莘巷書院 寧海의 丹山

書院, 韓山의 文獻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圖隱 鄭夢周(忠肅王 복위 6년, 1337~恭讓王 4년, 1392)는 恭愍王 9년에 文科에 壯元及第하여 벼슬이 成均大司成, 藝文大提學, 右文館大提學, 門下贊成事 등을 거쳐 守門下侍中에 이르렀고 益陽郡忠義君, 純忠論道 佐命功臣에 봉해졌으며 日本 및 明에 使行하여 外交의 성과가 컸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性理學을 연구하여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諸儒가 감탄하였는데, 李穡은 그를 극찬하여 말하기를 「鄭夢周의 論理는 橫說豎說하여도 理致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다.」라 하고 그를 東方理學(性理學)의 元祖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開城에 五部學堂의 설치와 지방에 鄉校의 보급에 힘써 儒術振作에 공헌하였고, 몸소 父母의 三年喪과 朱子家禮에 의한 家廟 설치를 실천하고 士庶로 하여금 그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李成桂 세력에 반대하고 高麗에 忠節을 지키다가 살해를 당하였는데, 朝鮮時代에 들어 太宗때 領議政府事に 추증되고 首陽府院君에 추봉되며 諡號를 文忠이라 하였다.¹⁰⁾ 그리고 中宗때 文廟에 從享되었고, 뒤에 士林들에 의하여 開城의 嶽陽書院, 龍仁의 忠烈祠, 迎日의 烏川書院 등 10여개 書院에 제향되었다.

陶隱 李崇仁(忠定王 1년, 1349~朝鮮太祖 1년, 1392)은 星山君 李元具의 아들로서 恭愍王때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政堂文學, 知密直司事, 同知春秋館事に 이르렀는데 鄭夢周가 살해된 뒤 그 일당으로 몰려 귀양갔다가 살해되었다. 그는 性理學에 조예가 깊어

鄭夢周, 金九容, 朴宜中 등과 成均館에서 후학을 교육하였고 文章을 잘하여 李穡이 「이 사람(李崇仁)의 文章은 中國에서 구하여도 세상에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라 하며 감탄하였고 明의 太祖가 李崇仁이 지은 表文을 보고 「表의 文辭가 참으로 切實하다」라 하며 탄복하였으며, 중국의 士大夫가 그 著述을 보고 탄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²⁰⁾

遁村과 교분이 두터웠던 性理學者로는 三隱 이외에 金九容, 朴宜中, 鄭道傳 등 많은 인물이 있었다. 金九容(忠肅王 복위 7년, 1338~禑王 10년, 1384)은 호를 傷若齋라 하여 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判典校寺事에 이르렀는데, 禑王 10년에 明에 사신으로 가던 중 遼東에서 잡혀 南京을 거쳐 大理로 귀양가다가 병사하였다. 당시 明은 高麗를 의심하여 고려의 사신을 잡아 귀양보내는 일이 많았었다. 또 그는 性理學을 연구하고 鄭夢周, 朴宜中, 李崇仁 등과 함께 學官으로 成均館에서 後學을 교육하여 우리나라에 性理學이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²¹⁾ 遁村의 文集인 遁村集에 보면 遁村과 金九容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근 50편이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교분관계가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朴宜中은 호를 貞齋라 하여 恭愍王때 文科에 壯元及第하여 벼슬이 藝文館提學, 成均館大司成을 거쳐 朝鮮時代에 들어 檢校參贊議政府事에 이르렀는데, 그는 학문에 독실하여 性理學에 밝았으며, 學官으로 成均館에서 後學을 교육하기도 하였다.²²⁾ 遁村集에 보

면 遁村과 朴宜中 사이에 주고 받은 詩가 5, 6편이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교분관계를 짐작케 하여 준다.

鄭道傳(忠肅王 복위 6년, 1337~朝鮮太祖 7년, 1398)은 호를 三峯이라 하여 恭愍王때 文科에 급제하여 成均大司成, 政堂文學 등을 역임하다가 李成桂를 받들어 朝鮮을 개창케 하고 政治, 外交의 활약은 물론, 儒學의 大家로서 性理學, 歷史, 著述 등의 활약도 현저하였으며, 抑佛崇儒를 朝鮮의 國是로 삼게 하여 儒學發達의 기반을 확립하였다.²³⁾ 遁村集에 보면 遁村과 鄭道傳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10여편이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교분관계가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性理學은 忠烈王때 安珦에 뒤이어 白頤正, 權溥에 의하여 수용되기 시작하여 李齊賢, 朴忠佐, 李毅, 白文寶, 李仁復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 학문적 기반이 성립되어 갔고, 다시 高麗末期의 李穡, 鄭夢周, 李崇仁, 金九容, 朴宜中, 權近, 鄭道傳 등에 이르러 정착되기 시작하였는데, 遁村은 바로 이 시기의 性理學者로서 우리나라에 性理學이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컸던 것이다.

3. 遁村과 麗末의 性理學者

遁村 李集先生은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高麗末期의 性理學者로서 그 존재는 자못 큰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그 시기의 性理學者들의 遁村에 대한 존경과 사모로써 입증되는 것이나, 특히 三

隱인 李穡, 鄭夢周, 李崇仁과의 관계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

먼저 敎隱 李穡과의 관계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李穡은 遁村보다 나이가 1년이 적었으나, 文科에 급제한 것은 遁村보다 2년이 앞서는 恭愍王 2년이였다. 이렇게 나이나 文科及第가 거의 비슷하였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교분은 각별한 것이 있었고 학문적인 교환도 특별한 것이 있었다. 遁村의 文集인 遁村集에 보면 遁村과 李穡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근 50편이 수록되어 있어 이것만 보아서도 그 교분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李穡은 文敬公 安先生(安輔) 墓誌銘 가운데 「先生(安輔)께서 일찍이 말하시기를 나에게는 子息이 없으니 門生이 바로 나의 子息이라 하셨는데, 그 門生으로 政堂文學 李寶林을 비롯하여 廉國寶, 李勒, 禹玄寶 등이 宰相 大官이고 그 밖에 通流하여 저명한 자가 많으며, 浮圖(佛敎)를 피하여 吾道(儒道)를 돕는 草溪의 鄭習仁이 있고 仇怨(辛純을 가리킴)을 피하여 荒野에 숨은 廣州의 李元齡(遁村의 初名)이 있다.」²⁰라고 기록한 것이 있다. 이 墓誌銘은 李穡이 지은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遁村에 대한 몇 가지 해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로 李齊賢의 손자인 李寶林을 비롯하여 廉國寶, 李勒, 禹玄寶, 鄭習仁 등과 함께 遁村이 安輔의 門生이라는 점과 둘째로는 遁村이 文科에 급제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忠穆王 3년이 아니라 恭愍王 4년 2월에 密直提學으로 同知貢舉가 되어 贊成

事로 知貢舉가 된 李公遂와 함께 문과를 주관하여 안지기 등 33인을 취하였던 것이다.²³⁾ 그러므로 安輔를 중심으로 하여 座主·門生 관계가 성립된 것은 恭愍王四年에 해당되고 아울러 安輔와 通村 사이에 座主·門生 관계가 성립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通村은 李公遂와 安輔를 座主로 받들어 文科의 考試官이었다는 것을 초월하여 스승으로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고 座主인 李公遂와 安輔는 그 주관하던 文科의 及第者들을 門生으로 하여 제자들, 子息으로 여겨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通村을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이미 앞의 節에서 언급한 바 있다.

高麗 때에는 座主·門生의 법이 엄히 행해졌다. 周知의 事實과 같이 座主라 함은 科擧文科에 있어서 考試官인 知貢舉와 同知貢舉를 말하며, 門生이라 함은 그 知貢舉와 同知貢舉 아래에서 文科에 급제한 자를 말하나, 座主와 門生과의 관계는 師弟關係에서 더 나아가 父子關係와 같았다. 이리하여 科擧를 통하여 하나의 人脈關係가 형성되어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範圍이 컸지만, 한편 門生은 학문적으로 座主의 영향이 컸으므로 通村도 座主 李公遂·安輔의 영향이 컸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李穡은 또 그의 文集인 牧隱集 通村記에서 通村이 그 말년에 이를 元齡을 孟子集義의 集字를 따서 集이라 고치고 字 成老를 浩然之氣의 浩然을 따서 浩然이라 고친 데에 대하여 「그대(通村을 가리킴)가 孟子에

대하여 진실로 맛보고 즐거워 하니, 그 聖人の 道를 구하여 보는 데에 거의 이르렀도다」라고 하여 遁村이 孟子의 聖人域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또 李穡은 遁村記에서

浩然(遁村의 字)이 父母가 늙고 子息이 어렸으니 아비를 업고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는 비와 이슬을 무릅쓰고 험준한 산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쫓는 자가 뒤를 따라올까 두려워 하여 숨을 죽이고 몸을 움추려 경계하여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도망하는 것이란 참혹한 것이다. 이는 마땅히 꿈에도 놀라고 깨어서도 놀랄 것인데, 바야흐로 의기 양양하여 안으로 자기의 몸이 즐거워 하고 밖으로는 남에게 자랑하였으니, 浩然是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遁村이 辛旽의 禍를 피하여 멀리 慶尙道 永川의 司諫 崔元道の 집으로 피신할 때의 어려웠던 사정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遁村이 참으로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講辭로 끝을 맺고 있다.

遁村의 文集인 遁村集에 보면 遁村과 李穡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근 50편에 달하여 두 사람 사이의 돈독했던 교분관계를 입증하여 주는데, 그 중에서 李穡이 遁村의 인품과 학문 그리고 우의를 읊은 詩 한 수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李浩然이 아들 翰林을 데리고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밤이 되어 돌아간다가에 한 수를 읊다.

浩然(遁村의 字)의 호방한 지기 儒林을 뒤덮더니
험난한 풍진 세상 지금에 이르렀네.
오직 斯文있어 恩義를 간직하였는데
매양 앞날을 말하며 옷깃을 적셨네.
교분으로 말하자면 나도 다른 이에 비할 바 아니
지만
詩句를 짓는 데는 누가 능히 그대와 같이 읊을
까.
牛酒로 찾아주신 정 더없이 두터운데
더구나 千金같은 아들까지 데리고 옴이라.²⁰⁾

(李浩然携子翰林以酒食來入夜而歸吟成一首:浩然豪
氣蓋儒林增躍風塵直至今 只有斯文恩義在 每談迎日
淚沾襟 論文我又非他此 得句誰能與子吟 牛酒特過
情更重 携來況復是千金)

이 詩 한 편만 보더라도 李穡의 遁村에 대한 학문적
으로나 인간적으로 그 신뢰가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
을 족히 짐작할 수 있으며 아울러 두 사람 사이의 교
분도 어느 정도였나 하는 것을 족히 짐작케 하여 준
다.

다음 關隄 鄭夢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鄭夢周는 遁村보다 10歲가 적었고 文科及第는 5년

이 늦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교분은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鄭夢周의 文集인 圃隱集안의 “遁村에게 답하는 글”(答遁村書)에 「7월 21일에 문득 佳章을 받고 몇번이고 읽으니, 世俗 밖에서 초연한 이는 그 말하는 것도 능히 깨끗하여 속된 사람이 미칠 수 없음을 알겠습니다」라고 하여 遁村이 世俗을 초월하여 高潔한 경지에 自適함을 치하하고 뒤이어 遁村의 居所인 川寧(驪州 梨浦)에 들러 밤새워 이야기 할 것을 기약하며 해마다 보내주는 餽쌀을 매우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遁村에게 답하는 글”만 보아도 鄭夢周가 遁村의 世俗을 초월한 高潔한 人品을 존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멀리 遁村의 居所인 驪州에 가서 밤새워 정담을 나누고 싶은 鄭夢周의 심정과 매년 잊지 않고 餽쌀을 鄭夢周에게 보내주던 遁村의 성의가 표현되어 있어 두 사람 사이의 두터웠던 교분관계를 입증하여 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鄭夢周가 遁村의 居所인 驪州를 찾은 것은 그가 평소 驪江의 情景을 그리워 하였던 것으로나, 두 사람 사이의 교분으로 보아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으며, 또 遁村이 매년 餽쌀이 나면 그것을 잊지 않고 보낸 것은 鄭夢周에게 뿐만 아니라 李穡에게도 그러하였던 것으로, 그것은 遁村集에 遁村이 餽쌀을 보내준 데에 대하여 사례하는 李穡의 詩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이러한 遁村의 餽쌀을 보내주던 성의는 교분이 두터웠던 李崇仁에 대하여도 그러하였었을 것이 짐작된다.

三隱 가운데서도 通村과 교분이 보다 두터웠던 것은 鄭夢周였던 것 같다. 그것은 通村集에 실려 있는 詩文(주로 詩) 가운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것이 가장 많아 그것이 근 60편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짐작된다. 그 가운데서 鄭夢周가 通村을 생각하는 詩 한 수를 들어보면 通村이 세상을 떠나자 “李浩然을 뜻한다(哭李浩然)”라는 詩題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생해보니 論交한지 三十年인데
 몇번을 淸談으로 등간 앞에 마주했던가.
 白頭에 이 마음 통한 벼슬 잃었는데
 그 누가 無從의 눈물을 흘려댄다 이르리.²⁷⁾
 (屈指論交三十年 淸談幾度共燈前 白頭失此知心
 友 誰謂無從涕泫然)

이렇게 鄭夢周는 通村이 세상을 떠나자 30년간 교분에 등간앞에서 淸談을 나누던 것을 회고하면서 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다음 陶隱 李崇仁과의 관계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李崇仁은 通村보다 22세가 적었으나, 文科及第는 7년밖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나이가 적어서 그러하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교분이 두터운 가운데서도 李崇仁이 通村을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던 것이 엿보인다. 李崇仁의 文集인 陶隱集 가운데 通村에 대한 記述이 보이는데, 그것을 抄記하면 다음과 같다.

李文忠公(李公遂)과 安文敬公(安輔)은 모두 道

德과 文章이 한 시대의 師表로서 사람을 알아보는 그 밝은 눈 그리고 선비를 구하는 데에 급한 마음은 비록 옛사람이라도 따르지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모든 豪傑과 英俊이 그 門下에서 나왔는데, 이 두분이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는 廣州의 李君(通村을 가리킴, 君은 卑稱이 아님)인 것이다. 내가 벼슬하기 시작하여 서울에 오게 되자 牧隱 李先生의 門下에 들어가 되었다. 어느날 先生을 뵈러 온 손 하나가 있었다. 그는 儀貌가 몹시 充滿해서 하나도 풀죽어 보이는 데가 없고 말하는 것도 警策하여 先生(牧隱을 가리킴)도 禮儀로서 대하였다.

나는 매우 기이하게 여기어 좌우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가 바로 廣州의 李君(通村을 가리킴)이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우리 둘이는 대개는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날마다 함께 講習과 討論으로 일을 삼았다. 혹시 人物을 評論하다가 활달한 높은 선비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이마에 손을 얹고 탄복하고, 웅중하고 진부한 자를 발견하면 그는 침을 뱉고 꾸짖기를 마지 않았다. 그는 대개 우뚝하게 절의를 자처하는 사람이었다.……戊申(恭愍王 17년) 가을에 역적 辛旽에게 미움을 받아 그 門客으로 세도를 부리는 자가 李君(通村을 가리킴)을 모함하였다. 이에 李君은 옷을 변장하고 늙은 父를 등에

업고 남쪽 땅 慶尙道로 도망가서 우거진 숲속
시냇가의 궁벽하고도 험준한 곳에 사슴을 벗삼
아 살았다.²⁸⁾

라고 기술하고 뒤이어 遁村이 원래의 이름인 元齡을
集이라 고치고 字 成老를 浩然이라 고친데에 대하여
序를 정하자 그에 대하여 답하는 말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君(遁村을 가리킴)은 평시의 행동은 말하지 말
고라도 그 난리(辛曉의 亂)를 4년간이나 겪는
다는 것은 사람치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런데도 君은 이것을 어렵지 않게 넘긴 것을 보
면 이것은 반드시 浩然의 氣를 기른 까닭이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²⁹⁾

라고 하였다. 이 陶隱集의 記述을 통하여 遁村과 李崇
仁 사이의 두터운 교분관계를 알 수 있는 동시에 遁村
의 人間像·學問像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위 陶隱集의 내용을 볼 때 遁村과 李崇仁 사이는 일
찍부터 잘 알지 못하다가 李崇仁이 벼슬하기 시작하여
李穡의 門下로서 놀다가 遁村을 처음으로 만났으며,
서로 알게 된 후에는 단 하루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
로 밀착하여 講習과 討論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또 위 陶隱集의 내용으로 볼 때 遁村은 儀貌가 充滿
하였고 言語가 警策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肅然케

하였으며, 氣性이 慷慨하여 人物을 論評하다가 활달한 높은 선비를 발견하면 이마에 손을 얹고 탄복하였고, 용준하고 진부한 자를 발견하면 침을 뱉고 꾸짖기를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遁村은 당대의 道德과 文章의 師表이었던 李公遂와 安輔의 많은 門下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고 소중히 여겨지던 門下였던 것이다. 또 遁村은 孝行이 지극하였고 浩然의 氣를 체득하였으며, 自然에 自適하던 偉人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遁村은 學問하는 데에 있어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함께 講習과 討論에 열중하였다. 그것은 遁村이 李崇仁보다 22세가 연상인데도 함께 講習과 討論에 열중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遁村集에 보면 遁村과 李崇仁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근 40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遁村이 李崇仁에게 보낸 詩 한 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늙으막에 서울에서 陶翁(陶隱)을 알았는데
 우아한 文彩 風流 翰墨을 두루 갖추었지
 물러나 遁村(遁村의 居所)에 사는게 부끄럽지만
 詩壇이건 酒席이건 늘 함께 하였시오.³⁹⁾
 (暮年京國識陶翁 文彩風流翰墨中 却臥遁村心有愧, 詩壇酒席每相同)

이렇게 遁村은 隱退生活을 하면서 李崇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 文彩·風流·翰墨을 두루 갖춘 나이가 젊은 李崇仁을 알게 된 것

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으며 그와 함께 詩壇이건, 酒席이건 늘 함께 한 것이 매우 회상적이었던 것 같다.

한 편 李崇仁이 遁村을 그리워 하는 詩 한 수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李浩然이 唐詩를 보내주어 詩로서 答한다.

漢山을 南으로 바라보니 길은 구불구불
어떻게 꽃시절에 오래 헤어질 수 있단 말인가.
二月은 벌써 가고 三月도 다하였는데
괴로운 吟詠에는 그대 그런 詩 가장 많다오.³⁰⁾
(李浩然送唐詩以詩答之:漢山南望路逶迤 有底花
時久別離 二月已過三月盡 苦吟多是憶君詩)

이렇게 李崇仁은 꽃시절에 北漢山 멀리 驪州의 遁村을 바라보며 헤어져 있음을 한스럽게 생각하면서 괴로운 吟詠에는 遁村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遁村이 세상을 떠나자 李崇仁은, 「遁村先生을 哭하노라(哭遁村先生)」라는 詩題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손가락 잡아보니 나를 아는 이 그 누구인가
아픈 마음 하늘에 묻고 싶다네.
若齋(楊若齋, 金九容)는 일찍이 萬里를 떠나버
리고
遁老(遁村) 또한 重泉에 가셨던가.

慷慨한 말씀은 사람을 놀래였고
 清新한 글은 世俗을 벗어났노라.
 이제는 모두 끝이 났노라.
 어떻게 울지 않고 배기겠는가.²⁹⁾
 (屈指誰知我 傷心欲問天 若齋曾萬里 遁老又重
 泉 慷慨驚人語 清新絕俗篇 卽今俱已矣 烏得不
 潸然)

이렇게 李崇仁은 遁村이 세상을 떠나자 그 慷慨한
 말과 清新한 글을 상기하면서 앞서 金九容이 세상을
 떠난 뒤를 이어 遁村이 세상을 떠난 데에 대하여 슬퍼
 하며 썼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遁村은 三隱과 두터운 교
 분관계에 있었다. 그렇다고 遁村의 교분관계는 三隱에
 그쳤다는 것은 아니다. 遁村의 교분관계는 三隱 이외
 에 性理學者로 金九容·鄭道傳 등에도 두터운 것이 있
 었다. 그것은 遁村集에 보면 楊若齋(또는 若齋, 자는
 敬之) 金九容과 주고 받은 詩文이 40여편이 넘고 三峯
 鄭道傳과 주고 받은 詩文이 10여편이 넘으며 子虛(또
 는 貞齋) 朴宜中과 주고 받은 詩가 6, 7편이 넘고, 養
 浩堂 禹玄寶와 주고 받은 詩가 3, 4편이 넘는 것이 수
 록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서도 그것이 입증된다.

金九容은 遁村보다 17세가 적었고 文科及第는 2년이
 늦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遁村集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詩가 40여편이 넘는 것이 수록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서도 그 교분이 매우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피차간의 詩 한 수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通村의 것으로 「病中에 敬之(金九容의 字)에게 부치다(病中寄敬之)」라는 詩題로

어느날에나 다시 손을 맞잡아 볼까
돌아 보니 물 저편인 것을
안부와 편지로 쉬 통하지만
오가는 것은 병이 서로를 방해하네
勝境은 三清洞이요
閑居엔 四友堂이라
나도 앞으로는 그대 곁에 살게 되리니
끝까지 江郷에서 늙지는 않으리라³⁹⁾
(何日重携手 回頭水一方 安危書易達 來往病相
妨 勝境三清洞 閑居四友堂 吾將就君住 終不老
江郷)

이렇게 通村이 病中에 江을 사이에 두고 갈리어 서로 만나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뒷날 江郷(驪州 川亭)을 벗어나 金九容 곁에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랬던 것이다.

한편 金九容은 「通村에게 부치다(寄通村)」라는 詩題로

뜰앞의 碧梧桐에 가을 이슬 맺히는데
풀잎에는 찬 벌레들 찌르록 우네
서글프다고 아녀자 본들 수야 있겠는가

다만 年來에는 더불어 말할 사람 없기에
 문닫고 베개에 기대니 등불만이 푸르구나
 한밤중에 산에 산에 빗소리 쓸쓸도 하네³⁰⁾
 (庭前碧梧秋露樓 草底唧唧寒虫踏 招恨何須效兒
 女 只爲年來無與語 閉門欹枕一燈青 夜半蕭蕭萬
 山雨)

이렇게 金九容은 遁村에게 가을 밤의 외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근래에는 외로운 사정을 달랠 수 있는 말벗마저 없이 고독히 나날을 보낸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은연히 遁村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鄭道傳은 遁村보다 10세가 적었고 文科及第는 10년이 늦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遁村集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詩文이 10여편이 收錄되어 있어 그 교분이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鄭道傳은 「遁村字後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교분관계는 물론, 遁村의 人間像을 한층 더 밝혀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全文을 들기에는 장구한 느낌이 들어 필요한 부분만을 抄記하기로 하겠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李君 元齡이 이름을 集, 字를 浩然이라 고쳤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李君이 일찍이 憂忠(辛旼의 編)에 곤란을 겪더니 어찌면 그의 평소에 있던 일을 懲

戒하기 위하여 고친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李君(通村을 가리킴)은 義士이다.……그는 우환이 닥쳐도 義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아 마치 泰山의 무거움처럼 남들이 그 動靜을 엿볼 수 없었고, 勇氣로써 걱정을 털어버려 마치 鴻毛가 燎原의 불길에 사그러지듯 형적조차 남김이 없었던 것이다. 곤경을 겪을수록 더욱 그 뜻을 굳게 하기는 마치 精金 良玉이 비록 烘爐로 녹이고 沙石으로 쳐도 그 精剛하고 溫潤한 본질은 더욱 나타냄과 같았으니, 마음속에 기쁜 바가 없는 사람이 능히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해보면 李君이 이름과 字를 바꾼 것은 아마 앞으로 가꿔야 할 바탕과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거기에 더욱 힘쓰려 함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를 바와 기르는 방편은 어떤 것입니까」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지금 李君(通村을 가리킴)이 集이라 이름하고 字는 浩然이라 하였는데, 이는 孟子的 말에 근거를 둔 것이다.……浩然이라는 것은 天地의 正氣이다. 모든 物體로 天地間에 존재해 있는 것은 모두 그 기운을 받아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가장 精粹한 기운을 타고 태어났기에 사람의 耳目의 총명이나, 口鼻의 호흡 그리고 손

으로 잡고 발로 달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운의 작용이 아님이 없는데, 이 기운은 본래
부터 浩然하여 아무런 결함이 없이 天地와 서
로 流通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李君이 기르
려 하는 것이다…….²⁶⁾

이 글은 鄭道傳이 지은 遁村의 字(浩然)에 대한 해
설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는 遁村의 人間像을 대변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鄭道傳은 遁村을 義士라고 전
제하고 憂患이 닥쳐도 義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勇
氣로써 걱정을 털어버리며 困境을 겪을수록 그 뜻을
더욱 굳게 하는 것이 바로 遁村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遁村이 기르려 하는 것은 浩然 즉 天地의 正氣
로서 字를 浩然이라 한 것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대 三隱을 비롯한 高麗末期의 性理學者들과 遁
村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 교분관계가 두터웠고 따
라서 遁村은 高麗末期 性理學者群의 一員으로서 巨星
的 존재였던 것이다. 李穡은 遁村이 聖人 孟子의 道에
거의 접근하였다고 말하였고, 鄭夢周는 遁村이 世俗을
초월하여 高潔한 경지에 있음을 俗人으로는 도저히 미
칠 수 없다고 하였으며, 李崇仁은 당대의 道德家요 文
章家인 李公遼와 安輔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
히 여기던 門生이 바로 遁村이었다고 하고 그 人品은
儀貌가 充滿하고 言語가 警策하며 氣性이 慷慨하다고
그의 文集인 陶隱集에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金九容

은 항상 遁村을 그리워 하였고, 遁村의 長子가 文科에 급제하고 次子가 監試에 합격하자 그를 축하하는 詩를 지어 보내기를 「…(前略) 한 세상 부러움이 吾人(遁村을 가리킴)에게 모였구려ᄃᆞ (一時歆艶屬吾人)」라고 하여 영광을 축하하였다. 그리고 鄭道傳은 遁村을 義士로 규정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義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勇氣로써 걱정을 털어버리며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뜻은 더욱 굳어지는 것이 바로 遁村이라고 하였다.

4. 遁村의 學行

遁村은 高麗 忠肅王 14년(1327)에 출생하여 우왕 13년(1387)에 61세로 逝去하였다. 遁村의 처음 이름은 元齡, 字는 成老, 號는 墨巖子라 하였으나, 그 晩年에 이름을 集, 字를 浩然, 號를 遁村이라 고쳤다. 이름의 集은 「孟子集義」의 集字를 따서 짓고 字의 浩然是 「浩然之氣」의 浩然을 따서 지은 것이다.

遁村이 文科에 급제한 것은 29세 때인 恭愍王 4년(1355)이었다. 廣州李氏左議政公派譜에 보면 遁村이 文科에 급제한 것이 忠穆王 3년(1347)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앞의 節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文科에 급제한 것을 계기로 遁村은 당시 文科를 주재하였던 知貢舉 李公蓬·同知貢舉 安輔와 座主·門生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으나,

특히 이 두 座主의 여러 門生 가운데서 通村이 가장 信望을 받았다는 것은 앞의 節에서 말한 바와 같다.

通村은 당대의 性理學者들과 두터운 교분관계를 맺고 學德을 쌓는 데에 매진하였는데, 특히 三隱 및 金九容·鄭道傳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이렇게 通村이 學德을 쌓는 데에 매진하였다는 것은 앞의 節에서 말한 것과 같이 李崇仁의 陶隱集에서 通村을 처음 만나고 나서는 둘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날마다 함께 講讀과 討論으로 일을 삼았다고 말한 것만 보아서도 通村의 學問에 대한 情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通村은 李穡으로부터 「通村은 孟子에 대하여 진실로 맛보고 즐거워 하니, 그 聖人의 道를 구하여 보는 데에 거의 이르렀도다」³⁷⁾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鄭夢周는 通村이 世俗을 초월하여 高潔한 경지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³⁸⁾ 李崇仁으로부터는 通村이 浩然의 氣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³⁹⁾ 鄭道傳으로부터는 通村이 義士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⁴⁰⁾

그리고 朝鮮 宣祖 때 吳滄이 편찬한 東史纂要에는 「李集은 廣州의 吏인 唐의 아들로서 兄弟 五人이 모두 文科에 급제하였다. 集의 初名은 元齡으로… 文章과 志節로 當世에 저명하였으며, 李穡·鄭夢周·李崇仁 등과 서로 敬重하였다」라고 기록하여 通村의 文章과 志節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東國輿地勝覽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通村이 文科에 급제한지 10년뒤인 恭愍王 14년에 通村에게 큰 위기가 닥쳐 왔다. 그것은 通村의 剛直한

성품이 당시 恭愍王의 총애를 받고 온갖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던 妖僧 辛旽의 비위를 거스린 것이다. 그리하여 通村은 慶尙道 永川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그 당시의 기록으로 牧隱集의 通村記, 陶隱集의 送李浩然赴合浦幕序, 鄭道傳의 通村字後說 등에 비교적 자세히 보이고, 후세의 기록으로 東國輿地勝覽, 東史纂要 등에도 보이며 墓碣文, 家乘 등에도 자세히 보이고 그 내용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辛旽이 횡포와 불법을 일삼자 通村이 하루는 그를 논박하고 나라의 장래를 한탄하였다. 이 사실이 辛旽의 귀에 들어가자 通村에게 닥쳐올 禍는 寸刻을 다투었다. 그 禍는 通村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닥쳐오는 것이었다. 이에 通村은 늙은 아버이를 등에 업고 낮에는 산속에 숨고 밤에는 걸어 온갖 비바람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도착한 곳이 慶尙道 永川의 科擧 同期이며 친구인 司諫 崔元道의 집이었다. 그리하여 通村은 辛旽이 誅殺될 때까지 4년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慶尙道 永川에서 피신생활을 하였는데, 이때 通村과 崔元道 사이에 友情에 넘치는 逸話가 있어 그것을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通村이 崔司諫宅에 도착한 날은 그 집에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崔司諫은 매우 난처하였다. 그것은 여러 손님들 앞에서 쫓기는 通村을 받아들였다가는 소문이 나서 通村은 물론, 자기까지도 禍를 당할 것이 뻔하였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崔司諫은 짐짓 뜰앞에서 머뭇거리며 通村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자네 집이나 망할 것이지 어찌 나의 집까지도 망치려고 하는가. 빨리 여기에서 떠나게」라고 하였다. 이 지경에 이르자 등에 업힌 老父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나이 먹고 병들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니 너나 먼곳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通村은 태연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이곳은 잠시 지나던 길이며 좀 더 가면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老父를 위로하며 崔司諫의 집을 떠났다.

한편 崔司諫은 생일잔치를 마치고 손님들을 다 보내고 나니 밤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혼자 호롱불을 들고 부랴부랴 通村의 父子를 찾아나섰다. 멀지 않은 산속에서 通村의 父子를 발견한 그는 낮에 있었던 어려웠던 사정을 말하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通村의 父子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 사랑방 벽장에 숨기고 매일 식사 때마다 下女가 들여오는 자기의 식사를 삼등분하여 이등분은 벽장속에 넣었다. 하루는 이 사실이 下女에게 발각되고 그 사실은 夫人에게 알려졌다. 이것은 崔司諫으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通村의 父子를 숨긴 것은 오직 자기만이 아는 비밀인데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通村의 父子는 물론 자기에게

도 禍가 미쳐올 것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崔司諫은 하는수 없이 下女의 혀를 잘랐고, 夫人에게는 스스로 혀를 깨물어 반병어리가 되게 하였다. 그 무렵 禁府에서는 遁村이 崔司諫 집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官吏를 보내어 그 부근 마을부터 모조리 조사하였으나, 마을의 인근 사람들이 입을 모아 遁村이 崔司諫 집에 잠시 앉았다가 갔을 뿐, 그 집에 숨어 있을 까닭이 없다고 하므로 禁府의 官吏들은 崔司諫의 마을에는 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상이 遁村과 崔元道 사이에 얽힌 逸話인 것이다. 참으로 우정에 넘치는 美談인 것이다. 이 逸話에 의하면 遁村이 四年間 벽장속에서 은거한 것처럼 느끼게 하나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遁村이 司諫 崔元道를 목표로 慶尙道 永川으로 피신한 것은 사실이고, 또 피신생활에 있어서 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틀림없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遁村이 피신중에 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피신 一年만인 恭愍王 十八年에 老父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하여 피신지 永川郡 蘿峴에 安葬하였는데, 그때 遁村의 비봉은 비길 데가 없었을 것으로, 이때 崔元道는 다음과 같은 詩를 지어 遁村에게 보내어 위로하였다.

遁村에게 드리다.

慷慨하게 시국을 한탄하여 눈물로 옷깃을 적셨는데

流離 중에도 지극한 孝誠은 幽陰까지 달했노라.

漢山은 멀고멀어 雲煙만이 아득한데

蘿峴은 굽이 돌아 草樹도 그윽하구나.

앞뒤의 두 馬鬣(馬鬣封)은 하늘이 가려준 것인데

그 누가 그대와 나 두사람의 마음을 알 것인가.

바라건대 대대로 길이 이와 같이 하여

모름지기 交情이 利斷金토록 하자구나.⁴¹⁾

(贈遁村：慷慨傷時淚滿襟 流離孝懇達幽陰 漢山迢遞雲煙阻 蘿峴盤回草樹深 天占後先雙馬鬣 誰知君我兩人心 願言世世長如此 須使交情利斷金)

이 詩의 내용만 보아서도 遁村과 崔元道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짐작할 수 있으며, 遁村의 孝誠이 지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性理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孝의 실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遁村이 慶尙道에서 피신생활 4년만에 朝廷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恭愍王 20년에 온갖 횡포와 추태를 다 부리던 辛旽이 誅殺되고 그 일당도 誅殺 또는 流配를 당하였으며, 그들의 모함과 증상으로 물러났던 重臣들이 모두 복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遁村도 새로운 光明의 天地를 맞게되어 開城 龍首山 밑 玄化里 옛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遁村은 再生한

뜻에서 이름 元齡을 集으로 고치고 字 成老를 浩然으로 號 墨巖子를 通村으로 고쳤으며 벼슬도 복직되어 奉順大夫(正三品) 判典校寺事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벼슬을 사직하고 驪州 川寧縣(지금 京畿道 驪州郡 金沙面 梨浦)으로 물러나 自然을 즐기며 讀書로 세월을 보냈는데, 이때 鄭夢岡가 찾아와 희포를 풀기도 하였다.

이렇게 通村이 벼슬을 버리고 自然으로 돌아간 것은 浩然的 경지에 들었다고 할 것이며 浩然的 氣를 체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通村은 禩王 13년(1387)에 61세를 일기로 隱居地에서 逝去하였다. 夫人은 黃碩範의 딸 鎭州 黃氏이고 아들로는 之直·之剛·之柔의 三兄弟를 두었는데 모두 文科에 급제하였으며, 딸로는 玉川 府院君 文僖公 劉欽의 夫人인 辰韓夫人을 두었다. 著書로는 通村集이 지금에 傳하며 墓地는 廣州郡細村面 大院里卯坐(지금의 城南市 下大院洞 山7의 1番地)이다.

通村의 高邁한 學德과 高尚한 志節은 朝鮮時代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顯宗 10년(1669)에 士林들이 그 遺德을 기리기 위하여 廣州 巖寺江邊(지금 서울市 江東區 岩寺洞 山 1의 1番地)에 龜巖書院을 세우고 享祀하였다. 이렇게 書院이 세워지고 享祀된다는 것은 士林의 社會에서 先賢으로 받드는 것이 되어 더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이나, 이 龜巖書院은 나라에서 인정받는 바가 되어 肅宗 23년(1697)에 왕으로부터 扁額을 하사받아 賜額書院으로 승격하였으니 그 영광은 한층 더

하는 것이 되었다.

5. 結 語

위에서 遁村의 學問像과 人間像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것을 요약하여 結語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忠烈王 때 安珦에 뒤이어 白頤正·權溥에 의하여 수용되기 시작한 性理學은 李嘉賢·朴忠佐·李毅·白文寶·李仁復 등에 이어지면서 연구되고 전파되어 학문적 기반이 형성되었고 다시 高麗末期의 李穡·鄭夢周·李崇仁·金九容·朴宜中·權近·鄭道傳 등에 이르러 定着되기 시작하였다. 遁村은 바로 이 高麗末期의 性理學者로서 우리나라의 性理學이 학문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遁村의 性理學的地位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遁村과 三隱을 비롯한 高麗末期의 性理學者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 교분관계가 두터웠고 따라서 遁村은 高麗末期 性理學者群의 一員으로서 巨擘적인 존재였던 것이 확인된다. 李穡은 遁村이 聖人 孟子的 道에 거의 접근하였다고 하였고, 鄭夢周는 遁村이 世俗을 초월하여 高潔한 경지에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李崇仁은 遁村이 浩然의 氣를 체득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鄭道傳은 遁村을 義士로 규정하였으며, 金九容은 遁村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워 함을 한 몸에 모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세의 기록을 朝鮮 宣祖 때 吳濼이 지은 東史纂要에서는 遁村은 文章과 志節로 當世에 저

명하였으며, 李穡·鄭夢周·李崇仁 등과 서로 敬重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東國輿地勝覽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러한 遁村의 뛰어난 文章과 굳은 志節에 대한 후세의 기록은 이밖의 다른 文獻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高麗末期 性理學者들의 遁村에 대한 평가와 후세의 遁村에 대한 기록 등은 그대로 遁村의 學問像과 人間像을 말하여 주는 것이 되며 또한 그것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 된다. 요컨대 遁村은 儀貌가 充滿하고 言語가 敬策하며 氣性이 慷慨하고 孝行이 지극하며, 苦難을 義의 勇氣로써 극복하고 그것이 더 할수록 뜻은 더욱 굳어지며, 學問을 사랑하고 벗을 중히 여기며, 浩然의 氣를 체득하고 自然에 自適하며, 文章과 志節이 뛰어나 참으로 聖人の 域에 도달하였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遁村의 學問像이요 人間像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註 1) 高麗史 卷 106 列傳 19 白文節 附 顧正

2) 白文寶 淡庵逸集 文憲公 彝齋先生 行狀

3) 高麗史 卷 106 列傳 19 白文節 附 顧正

4) 高麗史 卷 105 列傳 18 安珣

5) 上揭書

6) 白文寶 淡庵逸集 同門錄

7) 高麗史 卷 107 列傳 20 權恒 附 溥

8) 彝齋先生實記 門人錄, 高憲玲 14世紀 高麗士大夫의 性理學受容과 稼亭 李穀, 梨大博士學位論

2009 文 1992. 高麗史卷一百一十列傳第二十三李齊賢

9) 高麗史 권110 列傳 23 李齊賢

10) 高麗史 권109 列傳 22 李穀

11) 上揭書

12) 高麗史 권112 列傳 25 白文寶

13) 高麗史 권112 列傳 25 李仁復

14) 高麗史 권107 列傳 20 閔漬

15) 通村이 文科에 급제한 것은 廣州李氏左議政公 派譜에 의하면 忠穆王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李穡이 지은 安輔의 墓地銘을 검토하여 보면 通村이 文科에 급제한 것은 恭愍王 4년이 옳은 것 같아 이에 대하여는 뒤의 本文에서 보다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16) 高麗史 권112 列傳25 李公遂

17) 高麗史 권109 列傳22 安輔 附 輔

18)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穡

19) 高麗史 권117 列傳30 鄭夢周

20)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崇仁

21)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九容

22) 高麗史 권112 列傳25 朴宜中

23)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24) 牧隱集 牧隱文藁 卷19 鷄林府尹諡 文教公安先生(安輔) 墓誌銘에 「夫先生嘗曰 吾既無子 門生 卽吾子也 今其門生 李寶林政堂文學·廉國寶·李 勳·禹玄寶皆樞密宰相奉朝大官 又多其他通流以 名聞于時 而闢浮屠以扶吾道者草溪鄭習仁也 避

仇怨能遁村荒野者廣州李元齡(遁村의 初名)也」
라 하였다.

- 25) 高麗史 권73 志27 選舉 一 科目 1
- 26) 國譯遁村先生遺稿(遁村集) 附錄
- 27) 上揭書 附錄
- 28) 陶隱集 陶隱先生文集 권 4 送李浩然赴合浦幕序
- 29) 上揭書
- 30) 國譯遁村先生遺稿(遁村集)
- 31) 上揭書 附錄
- 32) 上揭書 附錄
- 33) 上揭書
- 34) 上揭書 附錄
- 35) 上揭書 附錄 遁村字後說 三峯鄭道傳
- 36) 上揭書 附錄
- 37) 牧隱集 牧隱文藁 1 遁村記
- 38) 圃隱集 권3 雜著 答遁村書
- 39) 陶隱集 陶隱先生文集 권4 送李浩然赴合浦幕序
- 40) 國譯遁村先生遺稿(遁村集) 附錄 遁村字後說 三峯鄭道傳
- 41) 國譯遁村先生遺稿(遁村集) 附錄

민병하, 「遁村의 性理學的 地位」에 관한 토론요지

토론자 : 조병로교수(경기대)

이번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최의 향토인물-遁村 李集과 강정일당-에 관한 조명은 지역인들의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새롭게 그 역사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내고장 인물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啓導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향토인물의 평가는 인물의 역사적인 역할과 사회적 제관계속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조상을 지나치게 美化하거나 褒貶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물의 평가는 그만큼 시대성을 바탕으로 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遁村 李集은 무신난이후 몽고간섭기인 忠肅王14년(1327)에 태어나 禔王13년(1387)에 61세의 일생을 성리학자로 살다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또 효행이 뛰어나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원래 성리학이란 중국 北宋의 周敦頤·程頤·程頤, 그리고 朱熹에 의해 완성된 일종의 道學으로서 宋學이라고도 한다. 성리학은 理氣說로 대표되는 宇宙 및 人間에 관한 철학이다. 이러한 철학사상이 趙復을 통

해 元에 전해졌고, 姚樞를 거쳐 魯齋 許衡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元의 성리학은 宋代의 우주론적인 理氣論보다는 小學에서 강조한 실천윤리적인 학풍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의 학풍은 당시 안향-백이정-우탁-권부-이계현-이곡-이색-정몽주-이승인 그리고 윤소중-박초-정도전으로 이어지는 新興士大夫에 수용되어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정치이념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 신흥 사대부들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역시 실천윤리적인 면이 강한 持敬과 戒懼 그리고 忠·孝·禮·信·誠 등 修身을 강조하게 되었고 朱子家禮의 정착을 통한 사회질서의 회복을 꾀하는 등 사회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성리학은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던 불교를 배척하게 되었으며, 이를 옹호한 權門勢族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변혁기에 문촌 이집은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같이 이색(牧隱), 정몽주(圃隱), 이승인(陶隱) 등의 三隱 등과 성리학적 교유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사상과 학문을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몇가지 소감을 피력하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 주제가 “문촌 이집의 성리학적 지위”인 만큼 문촌의 성리학자들과의 師友관계를 열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李公遠, 安輔와의 座主·門生관계나, 三隱 및 정도전 등과의 교유관계는 그렇다치더라도 제2장과 3장은 지나칠 정도로 중복, 서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2장은 고려 후기 성리학의 수용배경과 사대부들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후기 성리학의 경향을 언급하고, 3장에서는 둔촌과 직접 관련이 三隱 등과의 성리학적 교유관계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사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의 詩文에 나타난 文學的 경향을 분석해보는 것도 그의 사상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

둘째, 발표주제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둔촌의 성리철학 내지는 사상적인 위치나 성격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고려중기 신유학의 경향과의 비교나 원대의 실천윤리적인 학풍이 어떻게 둔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현·이색 등의 儒·佛 融和的인 인식이나 정도전의 '理一而分殊'에 나타난 主理論的 세계관과의 비교 그리고 불교에 대한 그의 입장에 대해서도 천명되었으면 한다. 사실 그의 문집 『遁村先生遺稿』나 『遁村雜詠』을 보면 정확하게 성리철학에 대하여 項目을 두고 논설한 것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단지 그의 詩文이나 시문을 통한 성리학자들과의 '교유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점에서 둔촌 사상의 체계적인 비교연구에 있어서

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셋째, 문촌의 정치적 입장에서 공민왕때 후屯의 專橫을 비난하다 경상도 永川의 司諫 崔元道의 집에 피난한 逸話와 관련하여 그는 당시 불교의 커다란 폐해가 되었던 寺院田의 혁파문제나 전제개혁 및 정치개혁 등에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 白文寶가 排佛論의 입장에서 經筵制度의 활성화, 度牒制 실시, 朱子家禮의 실천, 삼년상 시행, 家廟制 설립 주장 등 禮制改革論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해 그는 성리학적 이념을 어떻게 일상 생활 내지 사회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이 규명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온둔하여 자연속에서 浩然之氣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修己治人의 사회참여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개혁하고 국가를 바로잡는 참다운 실천적 성리학자로 자리매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孝行과 文章 및 志節로써 높이 칭송되는 인물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주제(主題)발표 논문(論文) (Ⅱ)

甲子士禍와 廣李

발표 : 최영희(전 한림대학교 교수)

토론 : 백남옥(동서울대학교 교수)

甲子士禍와 廣李

崔永福(翰林大 教授)

I. 머리말

연산군 4년(1498) 史草 문제를 발단으로 戊午史禍가 일어났다. 김일손이 史官으로 있으면서 그의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弔義帝文」을 사초에 올렸는데 이는 端宗을 項羽가 죽인 義帝에 비겨 그 죽음을 애도하고 왕위를 찬탈한 世祖를 비난하는 글이었다. 이 글이 연산군 초 『성종실록』의 편찬을 위한 史局이 열렸을 때 발견되었는데 이극돈이 이를 발설하자, 유자광이 연산군을 충동질하여 사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에 言官으로 진출한 신진사류가 기성세력의 비행을 공격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훈구파가 주도했으며, 그 결과 사림세력은 官界 진출에 좌절을 겪었고 動舊派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定說이다. 그러나 당시 발설당사자이며 주동자로 알려진 이극돈·어세결 등이 과격당하는 등 부분적으로는 면밀히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 무오사화가 일어난 지 6년 후인 연산군 10년(1504)에 또 다시 甲子士禍의 大獄事가 일어났다. 갑자사화는 궁중세력이 훈구세력과 마찰을 일으켜 반목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런데 실제로 갑자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궁중세력인 인사홍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많이 있
었다. 따라서 갑자사화가 단순히 인사홍 등이 그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볼수는 없을
듯하다. 또 즉위한 뒤부터 갑자사화가 일어나기까지
의 연산군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갑자사화가 단
순히 폐비 윤씨의 사사 사건에 대한 연산군의 복수
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라는 느낌도
든다. 이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일기』에 나타난 연산군의 행적을 중심으로
갑자사화의 발생원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既存 學說의 檢討

갑자사화는 흔히 宮中과 결탁한 朝臣과 府中의 朝臣이 대립하여 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훈구 세력과 부오사화 후에도 잔존하던 신진 사림세력을 일소할 목적으로 폐비윤씨의 廢位 賜死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한 궁중파 任士洪과 愼守謹이 주동했다는 견해이다.¹⁾

이러한 견해는 『연산군일기』 권63 12년 9월조의 史論이나, 『증중실록』의 원년기사²⁾ 또는 『燃籬室記述』 등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즉 『연려실기술』 권6 『연산조고사본말』 甲子士禍條에,

任士洪이 임금을 뵈옵고 울면서, 폐비는 엄숙의·정숙의 두 사람의 참소로써 성종께서 죽이게 되었습니다하니, 임금이 드디어 두 사람

1) 『한국사』 12(국사편찬위원회 편, 1981), pp.174-175.

潮野馬熊, 「燕山朝의 二大禍獄」, 『靑丘學叢』 3, 靑丘學會, 1931), pp.52-55.

李相栢, 「韓國史」 近世前篇(震樓學會, 1962), pp.540-543.

李鍾恒, 「韓國政治史」(博英社, 1963), pp.272-274; p.281.

姜周翼, 「李朝黨爭史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pp.45-47.

洪淳純, 「士禍와 黨爭과의 關係」, 『大邱史學』 7·8합집, 1973), pp.9-10.

李達淳, 「朝鮮王朝政治研究」 韓國政治史 1, (수원대출판부, 1990), pp.183-186.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潮野馬熊의 견해를 답습한 것들로 실증적인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金鐵,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1993, p.7).

2) 『증중실록』 권1, 원년 9월 戊寅.

을 죽이고 무도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조정
에 있는 신하 백여 명을 죽였다.

라고 한 기사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은, 갑자사화의 원인
을 임사홍 등에게 돌리기 위해 후대에 附會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연산군이 이때야 비로소 윤씨의
폐위·사사에 대한 진상을 알게된 것이 아니었다. 연
산군은 이미, 즉위 초부터 생모 윤씨의 폐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산군은 즉
위 직후 성종의 廟誌文을 보았을 때, 폐비 윤씨의 아
버지인 尹起敎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폐
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그해 4월에 폐비 윤씨의
묘 관리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己亥年 廢妃教書,
辛丑年 葬訖, 乙酉年 下旨, 尹邁定罪時의 傳旨 등을 열
람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연산군은 이미 즉위
초에 廢妃·賜死의 전말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³⁾

둘째, 中宗反正의 주도세력 가운데는 연산군 당시 요
직에 있던 신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들은 갑자사화가 한창 진행될 때에 영외정으로 있었던
유순의 경우와 같이, 연산군에게 다소간 순종하던 신하
들이었다. 이들은 연산군 치하에서 자신은 아직 무사하
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반정에

3) 金敬, 「燕山君代의 君臣關係와 그 推移」, 《歷史教育》 53輯, 1993), pp.177-178.

참여한 경우나, 또는 반정의 성공이 거의 확실하였기 때문에 반정 당일에 끼여든 경우도 많았다. 그러므로 중종반정은 연산군 폭정에 적극 참여하거나 동조한 자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주도세력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후 갑자사화의 책임은 연산군보다도 반정과정에서 숙청된 인물들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즉, 연산군대의 학정과 사화의 책임이 모두 중종반정 때 죽은 자들인 임사홍, 신수근 등에게로 돌려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셋째로 갑자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는 임사홍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이로 보면 갑자사화가 단순히 임사홍 등이 그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갑자사화를 전적으로 다문 논문은 아니지만 훈구파와 사림파 간의 대립 보다는 연산군의 전제왕권 강화에서 갑자사화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는 있다.⁴⁾ 따라서 갑자

4) Edward W. Wagner, 「政治史的立場에서 본 李朝 士林의 性格」(『역사학보』 85, 1980)

_____, 「李朝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근대사학』 4, 1980).

李成茂, 「士林과 士林政治」(『清溪史學』 8, 1991)

鄭杜然, 「朝鮮時代의 臺諫研究」(일조각, 1994)

全 燾, 「燕山君代의 君·臣 權力關係와 그 推移」(『歷史教育』 53, 1993).

사화의 실체를 살피기 위해서는 연산군이 즉위한 후부터 갑자사화가 일어나기까지의 연산군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갑자사화의 기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甲子士禍는 연산군 10년 4월에 일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것은 갑자사화를 폐비윤씨 사건에 대한 복수로 한정해 보는 입장에만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갑자사화의 목적이 이에 그친 것이 아니라면 사화의 발단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산군이 자신의 왕권강화를 위해 갑자사화를 일으켰다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윤씨의 폐비사건에 대한 복수는 이들이 더하여진 사건으로 본다면, 갑자사화가 일어난 시기는 그 전 해인 연산군 9년(1503) 9월 부터로 확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II. 燕山君代 政局의 運營

1. 燕山君과 言官

조선시대의 정치는 언관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은 성종조 사림세력이 진출하면서 이룩된 것이었다. 연산군 5, 6년은 비록 무오사화에 의하여 크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성종 때 이룩된 언관정치의 전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연산군 5년 柳子光의 私進에 대한 삼사의 논박으로 특진관·도총관에서 체임되는 것은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 이미 연산군은 언관에 대해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태였다. 연산군은 삼사에 대하여 자주

대간과 홍문관이 서로 비호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는 그들의 구호를 받고 허망한 말을 듣지 않는다.(『연산군일기』 권34, 5년 7월 13일)

(홍문관원에게 전교하기를) 촉광이 비록 밝을 지라도 어찌 능히 사방을 두루 비추겠는가? 선비들의 풍습을 바로 논술하고, 그 책임을 위로만 돌리지 말라.(『연산군일기』 권34, 5년 8월 20일)

라고 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산군 5년 10월 27-8일에는 우의정 성준의

家奴가 사헌부 吏屬에게 잡혀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준이 왕에게 이 사실들을 고하자 대간들의 격렬한 논박을 받게 되었다. 대간과 대신 사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대신과 연산군 對 대간 사이의 갈등으로 비약된 것이었다. 삼사의 성준에 대한 논박은 12월 말까지 계속되며, 11월 14일에는 경연도중 金麟厚와 성준이 크게 다투고 이로 말미암아 김인후 등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 또 대사헌 金謙이 성준의 처벌을 청하자 연산군은 “경 등은 술이나 마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12월 6일에는 대간이 상소하자, “경 등의 고집이 이리하므로,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상소로써 종이 다 없어지더라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또, 성준이 사퇴하려 하니 연산군이 말하기를,

대간과 홍문관이 한마음이 되어 재상과 맞서, 대간이 잘못이 있으면 홍문관이 구원하고, 홍문관이 잘못이 있으면 대간이 구원하니, 이것은 지금의 폐풍이다. 대저 조정이 화목해야 국가가 편한 것인데 대소 신하들이 각자 딴마음을 가지니, 그래도 되겠는가?(『연산군일기』 권35, 5년 12월 13일)

라고 하여, 대간들을 질책하고 있다. 이러한 연산군의 대간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증폭되는데,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

다. 權擘의 손자인 權憲의 상소에 대해 領事 이극균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대간이 事體를 생각지 않고 시비도 아랑곳 없이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선왕 때에 어찌 대간이 없었겠는가마는, 驛馬로 승려를 태우는 일 같은 것도 오히려 논제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런 일은 없다. 근래에 선비들의 풍습이 점점 경박해져 성종 말년에서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그만 쌓인 폐단이 되고 고쳐지지 않았다. 내가 만일 瓊宮·瑤臺를 짓거나, 옥절을 짓는다면 말해도 좋으나, 세미한 일을 가지고 말하여 그치지 않는다. 言官이 된 자는 원래 논제할 만한 일을 골라서 논제하여야 할 것이니, 이 풍습을 없애지 않으면 후세에 가서는 더욱 방자해질 것이다. (『연산군일기』 권49, 9년 3월 14일)

라고 하여 '방자한 풍습'으로 치부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홍문관에 대한 연산군의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심하였다. 연산군 7년 홍문관이 유자광을 논박하면서 아울러 대신들이 음으로 유자광 등을 편든다고 하였고, 대신들이 이 일로引避하였다. 이에 연산군은 홍문관원들을 외금부에 가두어 국문하라고 하면서, 전

교하기를

홍문관은 대간이 유자광의 극론을 했을 때는 일찍이 말하지 않다가, 대간이 이미 중지하게 되자 감히 이같이 하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또 비록 간사한 사람의 일이라도 홍문관에 관해서는 모두 옳다고 하면서 대신들의 일은 반드시 논박하니, 이로써 본다면 周公과 傅說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홍문관은 일찍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폐단은 어찌 일조일석에 발생한 일이겠는가. (『연산군일기』 권41, 7년 11월 16일)

라고 하고 있다. 연산군의 홍문관에 대한 불만은 홍문관의 성격상 항상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홍문관은 經筵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경연석상에서 임금과 대신에 대한 논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여름·겨울 같은 계절이나, 또는 微疾만 있어도 경연에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이 때문에 대간과 대신들이 경연에 부지런히 힘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에 연산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臺諫이 경연에서, 내가 오랫동안 주장과 석강을 폐지했다고 말하고는 성중계서 부지런히 경연에 남신 아름다움을 일컬으나, 사람의 어질고 어리석음이 같지 않다. 그러나 나도 어

찌 사고가 없이 오랫동안 경연을 폐지했겠느냐?(『연산군일기』 권45, 8년 8월 25일)

연산군이 삼사의 관원들과의 접촉을 꺼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것에 대하여 연산군이 학문에 뜻이 없었고, 향락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燃籬室記述』은 “대개 연산군이 본성을 잃은 것은 윤씨가 폐위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에는 자못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어졌다”⁵⁾ 라고 적고 있다. 이는 연산군을 단순히 무식한 폭군으로만 치부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실록의 곳곳에 남아 있는 연산군의 시들이나, 왕위에 오르기 전에 『春秋』를 읽었다는 사실⁶⁾, 『詩經』 『書經』이나 『史記』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뜻을 피력한 傳旨⁷⁾ 등을 볼 때, 연산군을 ‘無識’한 임금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산군이 본성을 잃은 것은 윤씨가 폐위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한 『燃籬室記述』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연산군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보인다.

5) 『연려실기술』 권6, 「燕山朝故事本末」廢妃尹氏復位條

6) 『연산군일기』 권51, 9년 11월 2일.

7) 『연산군일기』 권32, 5년 1월 13일 제유 ; 권51, 9년 11월 22일.

(御書에) 내가, 강아지가 제 어미 무는 것을 달려들어 무는 것을 보았는데, 덮어놓고 그러는 것일까? 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요새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 개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이 뜻으로 論을 지어 올리게 하라. 『연산군일기』 권39, 6년 11월 5일)

御書를 내리기를, 『침이 참소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왕후를 폐위 시킬적에 조정 신하들이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기어코 諫하는 것이 올랐는가?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순종하는 것이 올랐는가? 사람에게 구애하지 말고 명확하게 의논하여 아뢰라』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일로써 제목을 삼아,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각각 論과 律詩를 지어 바치게 하라.』 『연산군일기』 권42, 8년 2월 5일)

폐비의 일은 성종의 명철로 어찌 깊이 생각해서 하지 않았겠는가마는, 그러나 일이 투기 한데서 생겼고, 투기하는 일은 비록 堯舜의 시대에도 또한 어찌 반드시 없었겠는가? 『연산군일기』 권45, 8년 7월 29일)

어제 思廟에 나아가 지진을 뵈었는데 / 잔드리고 나서 눈물이 자리를 가득 적셨도다. // 간절

한 정회는 한이 없는데 / 영령도 용당 이 정성을
돌보시라. (『연산군일기』 권46, 8년 9월 5일)

聖人の 七去의 법이 있으니, 만일 그런 죄라
면 버리고 말 것이지 하필 죽어야 하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푸른 상의를 입음이여!
누른 치마로다.(緣兮衣兮緣衣黃裳)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후궁 속에 한 사람의 소위일
것이다. 성종께서 명철하신 임금이지만, 어
찌 잘못된 일이 없겠는가? 그때의 재상들이
극력 간하였다면, 반드시 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23일)

즉 위 기사들은 연산군이 즉위 직후 이미 생모 윤
씨의 폐비·사사의 전말을 파악하고 “침이 참소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왕후를 폐위 시킬 적에 조정의 신
하들이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기어코 諫”하지 않
았던 것에 대한 불만이 뇌리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갑자사화가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씨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었던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사화의 발단이 되는 9년경의 기사는 폐비
윤씨의 문제보다는 연산군의 신하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자신을 제약하려는 신하들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폐비 윤씨의 문제는 사
화의 진행에서 연산군이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에 불

과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燕山君과 元老大臣

연산군은 적어도 갑자사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의정부와 6조의 대신들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연산군의 행동에 대해 항상 간섭하고 제약을 가하려는 대간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해 줄 업계물로서 대신들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로서 뒷받침 된다.

(성준이 사직을 청하는 상소 끝에, 연산군이 비답으로서 쓰기를) 마음과 일이 모두 바르는데 어찌 번거롭게 물러가려 하오? 지금 만일 공을 遞代한다면, 대간의 통묘를 비호한 뜻을 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를 능멸하고 대신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날로 일어날 것이니, 이것을 누가 구원할 것이오?(『연산군일기』 권 35, 5년 12월 10일)

史官은 적기를, 성준에게 당화를 내려주었다. 왕이 성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고 상을 내려 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다물게 하고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고자 한 때문이다.(『연산군일기』 권46, 8년 10월 29일)

즉, 연산군은 대신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이들을

이용하여 대간의 견제를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하거나 또는 자신의 퇴폐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산군의 대신을 이용한 언관 견제는 갑자사화가 일어나기까지 한시적인 것이었다. 연산군은 그의 폐정이 깊어질수록 대신과 대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면서 반발하는 신하들에게 극단적인 대응자세를 취하였다. 연산군은 신하들의 반발에 대해 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유교적 윤리를 자신이 먼저 위반하면서 신하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다. 특히 연산군 9년 11월 20일에는 두 대비가 창경궁에서 왕에게 잔치를 베풀자 왕은 사헌부·승정원을 불러서 기생 耐寒梅와 廣寒仙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시를 지어 바치라고 하여 모욕을 주었다. 또 왕 스스로 북을 치 노래하고 춤을 추었으며 손으로 신하들의 紗帽를 벗기고 머리를 움켜잡으면서 희롱하고 육보였다. 그리고 다음날은 잔치에 참석했던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자신이 실수했는지를 물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본심과 다른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⁸⁾ 그런데 이와 같은 연산군의 행동은 단순한 성리학적 윤리 도덕에 대한 반발의 문제가 아닌 절대적인 왕권의 추구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즉, 신하들이 자신의 퇴폐적

8) 『연산군일기』 권51, 9년 11월 20일.

인 행위에 전과 같이 반발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길짓 따르는 채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모두 믿지 않았지만, 다 숙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갑자사화 시기에 영의정으로 활약했던 柳洵은 이러한 결과 선택된 신하였다. 『연산군일기』를 편찬한 史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먼저 주살을 행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제거하고 또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얻으려 했는데 柳洵이 기개가 없어 제어하기 쉬운 줄을 알고 특별히 정승으로 삼았다. 유순도 또한 구차하게 왕의 야욕을 따랐으므로, 총애와 대우가 날로 더하여 끝내 禍患이 없었던 것이다.』(『연산군일기』 권48, 9년 1월 3일)

연산군의 대간들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깊어갔지만, 한편으로 원로대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고 있다. 이미 연산군은 9년 경부터 척신들을 발탁하여 요직에 등용하기 시작하였다. 척신의 등용은 대신과 대간을 동시에 견제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려는 연산군의 새로운 방패막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산군 9년 尹邁를 승지로 임명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대신과 대간은 이전까지의 견제 대립관계에서

밀착 관계로 발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알려준다.

근래에 대간이 일을 말하면, 홍문관·승정원
· 육조·외정부가 반드시 서로 변명하여 구하
려고 하는데, 이런 버릇이 풍습이 되어 나와
같은 용렬한 임금으로는 갑자기 고칠 수가 없
을 뿐더러 언로에 방해가 된다.(『연산군일기』
권48, 9년 2월 1일)

연산군 9년 이후 대간과 대신은 세력이 약해지는
반면, 연산군의 퇴계적인 행위와 호화스러운 남비는
도를 더해갔다. 따라서 대신과 대간은 서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간의 힘이 무력해지기 시작했고, 또 자신을
옹호해 줄 세력으로서 이용해 온 성종이래의 대신들
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신과 대간세
력이 결합하는 상황은 또 다른 위기로 의식되었다.
이를 의식하여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으로서 외척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자신을 물
아내고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친은 배격하는
한편, 외척이나 처족은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판단하
였다. 특히 특명으로 계비 윤씨의 오빠인 윤구를 동
부승지로 임명한 것은, 직후 일어난 정국에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날인 9월
11일에 이세좌가 인정전의 양로연에서 임금의 술잔

을 잃지른 것이 갑자사화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¹³⁾ 또 며칠 후인 9월 17일에는 척족 具壽永을 판의금부사로 임명하여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복수와 관계되는 김효손·김수말 등과 임승재 등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직을 계수받고 있다. 즉, 연산군이 유순 등 자신의 의중을 잘 따르는 신하로서 정부를 구성하고 또 심복이 될 수 있는 척족세력을 기용하는 양상은 곧 연산군의 계획대로 차순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볼때 연산군과 대신간의 관계 특히 성종대에서부터 중요역할을 담당해 온 원로대신들과의 관계는 연산군 8년까지는 큰 마찰없이 유지되었으며, 서로 비호해주기조차 하는 관계가 유지되었다. 연산군 9년 중반까지도 연산군은 언관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대신들의 편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들 대신들은 연산군편에 서서 대간들과 대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9년 후반이 되면서 이미 노쇠해진 원로대신들을 대신해서 척족들이 연산군의 주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산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들을 등용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연산군은 자신에게 반발해온 신하들을 숙청하기 위한 적당한 기회를 찾게 되었다.

IV. 甲子士禍의 勃發과 經過

甲子士禍는 보통 연산군 10년 4월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갑자사화의 발단을 계비운씨 사건에 의한 것으로 보았을 경우이다. 그러나 갑자사화를 연산군이 왕권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확대시킨 사건이고, 그것에 계비사건은 이의한 수단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면 갑자사화의 기점은 연산군 9년 9월로 볼 수도 있다.

갑자사화 발생과 진행에서 성준은 大臣과 臺諫 그리고 연산군 사이에 과한을 일으킬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건을 만들었다. 그 하나는 앞서 살펴본 연산군 5년, 성준의 집 종과 사헌부 吏屬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대신과 연산군 對 대간 사이의 갈등으로 비약된 사건이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은 연산군 9년 성준의 아들 景溫이 과거에 급제하여 4館(成均館, 藝文館, 承文院, 校書館)의 官員들을 청하자, 4관에서는 이 사실을 각 曹에서 보고하여 推劾하려 하였고, 성준은 연산군에게 4관의 官員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辭避를 청했던 사건이다. 성준은 9월 8일에 연산군에게,

我朝에는 본래부터 웃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있어 연소한 무리들이 서로 봉당을 맺어 그 버릇이 이 弊風이 되다가, 戊午年 후로는 그 풍속이 좀 잡혔는데, 지금 다시 일기 시작

합니다. 신이 수상의 직에 있으면서 모욕을 받음이 실로 많으니, 辭避하기 청합니다.(『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8일)

라고 하여, 연산군이 4館의 관원을 국문하게 했던 것이다. 이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史論이 실려 있어 이 사건은 갑자사화의 序曲이었음을 시사한다.

사신이 논하기를, 성준이 그 아들의 공손스럽지 못함을 책하지 않고 도리어 4관에 노여움을 가져, 그 憤을 풀려 임금의 뜻을 영합하여 심지어 무오년의 일까지 끌어대어 4館을 위협·견제하려 한 것이다. 무오년 옥사에 성준이 推官이 되어 명사들을 봉당이라 지목하여 거의 다 베고 귀양 보냈고, 지금 또 위를 업신여긴다고 지목하여 갑자년의 화를 열어놓아 제 몸 역시 없어지는 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罪지은 자에게 죄가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8일)

사흘 뒤에는 공교롭게도 인정전의 養老宴에서 이 세좌가 임금의 옷에 술을 엷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갑자사화로 번져갔던 것이다.

이후 갑자사화의 진행과정을 편의상 사건의 경과, 외척의 등용, 광리의 동향 등에 따라 표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연월	사회의 경과	외척의 임용	관리관린기사
연산군 9년 9월	8일 성준의 辭避로 4 관 관원 국문	9일 계비 윤씨의 오빠 은구, 봉부승지에 특채 17일 척족 구수영, 관 의금부사에 임명	11일 이세좌, 인경전 양모연에서 술잔 을 잊지름 20일 이세좌, 무언에 부처, 은성으로 이래
11월	21일 창경궁 내전에서 두 대비가 해문 간치에서 군신이 모두 실수 22일 연산군이 신하들 을 불러 관직과 선물을 주며 의 중을 살핌	13일 숙원 장녹수의 형부 김효손, 전 함별감에 제수	
12월	16일 사헌부에 조정의 관치에 불감하는 신하들을 감찰도 록 지시 26일 감찰 權覺衡, 30 일 龍壽(연산군 의 아들)의 별감 나장 구타를 이 유로 파직 27일 사헌부 장형 李栢 등이 권안형의 파직을 論議, 능 상이라고 지적반 응.		
10년 1월	7일 인수대비 위독, 삼공옥경과 喪制 의논	5일 김효손 중부주부 에 임명 20일 종원위 임술재 장악원제조 제수	11일 이세좌 사면

연월	사회의 경과	외척의 임용	관리관련기사
2월	19일 지중추부사 정현 졸(86세) 29일 임승재, 병 징박. 그를 논박한 대 간 처벌 권고	4일 駙馬인 南致元 平 市署提調 계수	윤영
3월	11일 경기관찰사 洪貴 達이 아들 洪彦 國(參奉)의 딸 誼蘭 거부. 언국 과 귀달을 국문 도록 권고 13일 木柳에 口是藏之 門 舌是斬身刀 閉 口深藏舌 安身處 處야라고 새겨 환 관들에게 차게 함. 20일 安陽강과 嚴安君 에게 그 어머니 鄭貴人을 때려 죽이게 함. 연산군은 仁 粹大妃의 침전으 로 난입. 22일 대신에게 폐비 윤 씨의 묘호를 고 치고 시호를 올 리는 일을 의논 도록 권고. 24일 승정원에 폐비할 때 의논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사약을 내릴 때 나가 붙여한 재상 들을 상고계함. 폐후의 시호를 『貞獻』으로, 愍宗 을 愍宗으로 개정.	9일 윤구 공조참판제 수	3일 이세좌, 단종문 밖에서 사은 14일 이세좌를 논죄하 지 않은 전후 대 간을 조사토록 권고. 15일 이세좌가 귀경했 을 때 방문한 신 하 조사 16일 다시 이세좌를 논 죄하지 않은 전 후 대간을 조사 도록함. 17일 이극균·성준· 유순 등에게 이 세좌의 일을 하 문. 19일 이세좌, 다시 거 제도에 응대시키 고, 그의 내아들 과 홍귀달의 아 들 홍언국을 서 복지방으로 부쳐. 25일 이세좌의 아우 세 걸을 홍양에, 아 들 수원을 복성 에 부쳐. 28일 이극균을 국문계 함. 30일 이세좌에게 사약 내림.

연 월	사화의 경과	외척의 임용	관리관련기사
4월	<p>1일 도승지에게 제위할 때 찬성한 자, 불가하다고 간하다 처벌된 자, 사약을 내릴 때 명령을 집행한 자를 상고도록 전교.30</p> <p>5일 유순에게 비밀전지 내림. 유순을 좌의정, 허집을 우의정, 윤구를 병조참판에 제수. 18일 제위 때 찬성한 자를 처벌도록 전교(이과 부관참시, 윤필상 고신삭탈가산책류, 정창순·한명회·심희·정인지·김승경 고신추탈).</p> <p>23일 제위 당시의 대간 조사 전교.</p> <p>25일 인수대비 사망. 연산군, 易月之制를 시행.</p>		<p>1일 이극균, 仁洞縣에 부처,</p> <p>9일 의금부도사 안처익이 이세과가 옥매달아 자결하였음을 보고.</p> <p>18일 제위 때 찬성한 자를 처벌도록 하면서 부처된 이세과의 아들·사위·아우를 폐서인도록 전교.</p>
윤4월	<p>1일 연산군, 대비상에 따른 성복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함. 허집의 주장으로 성복.</p> <p>4일 영의정 성균, 병철각 사직.</p> <p>5일 제위 때 언문을 가져온 성균, 노공 짚을 외방에 부처.</p>		<p>12일 이극균, 장 1백 번방으로 승배.</p> <p>13일 이극균의 아들·사위에게 장 1백 번 번방으로 분배.</p> <p>17일 승정원에서, 사약 내릴 때 승지 중 이세과를 거론.</p>

연월	사회의 경과	외척의 입용	관리관련기사
윤4월	<p>13일 윤필상에게 사약을 내리고, 아들에게 장 1백에 처함.</p> <p>15일 정성근, 성종 사후 3년간 素食하였다 하여 사형.</p> <p>16일 조지서, 농상으로 사형.</p> <p>17일 승정원에서, 폐위 때 승지 홍귀달, 사약 내릴 때 승지는 노공필이서 좌성군이라고 함. 이 사실을 정승에게 논죄케 함.</p> <p>20일 주계부정 이신원의 아들 이유녕을 호수하고, 승훈, 윤권상을 부관참시.</p> <p>21일 정창손·심희·한명회 등을 부관참시.</p> <p>29일 어세겸, 각종원, 김제신을 부관참시, 실군 하옥.</p>		<p>18일 김영순, 인통에서 이극균에게 죽음을 내린 일을 보고.</p> <p>20일 이극균, 부관참시.</p> <p>26일 사헌부, 이극균과 교결한 유자광과 임사홍 斬刑당 처벌요구, 3천리 流刑을 속마치고 그대로 일보게 함.</p>
5월	<p>4일 성준, 고수형에 처함.</p> <p>6일 연산군, 제현왕후(제비운씨) 추궁. 유순, 허침, 박승길 등에게 선물을 하사하면서 賄賂가 따무리</p>		이세과의 네 아들과 동생 세걸을 참형에 처함.

이중 사화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연산군 10년 3월 11일에 경기관찰사 洪貴達에 관한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귀달이 아뢰기를, 그의 아들 洪彦國(參奉)의 딸이 병이 있어 詣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곧 들게 하더라도 역시 들 수 없다"고 하니 언국과 귀달을 모두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어 귀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교하였다.

“누가 곧 입궐하라 하였기에 이런 悖逆(패역)한 말을 하느냐? 그 불공함이 이세좌가 下賜酒를 기울여 쏟은 죄와 다름이 없다. 대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관찰의 소임을 할 수 있겠느냐?”

“귀달이 대신이니, 백관의 師表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불공한 말을 아뢰었다. 대저 대신이 재상이라 하지않고 그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면 신진선비들이 역시 법받게 될 것인데, 그 위를 업신여김이 세좌와 같다. 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저 지금 대간은 그 근거를 보면, 재상인즉 세력이 두려워 말하지 않고, 고단한 세력이 없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탄핵 논란하여 말지 않는데, 대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상까지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이

9)「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1일.

어 대간이나 채상헌 자들이 서로 봉당이 되어 인군을 위에 고립하게 하니, 이러기를 말지 않는다면 삼한의 오래고 먼 왕업이 반드시 장차 떨어지고 말 것이다. 앞서 무오년 봉당의 무리들이 이미 중한 벌을 받았으니, 앞수레의 엮어짐을 역시 거울 삼아야 할 것인데, 그런 풍습이 다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으니, 이런 폐습을 없애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비한다면 아직 그 터지지 않았을 때에는 죽을 쌓아 막을 수 있지만 무너져 넘친 뒤에는 사세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다...지금 귀달이 아뢰는 것은, 대개 이세좌가 공경스럽지 못한 죄를 범하였는데도 중한 죄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패역한 말은, 친구간의 좀 높은 자에게도 감히 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인군의 앞에서이겠는가? 국문하라.”(『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1일)

이어 의정부와 6조를 부르고 또 승지들에게 홍귀달·이세좌 등의 일을 의논하게 한뒤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내일 세좌의 아들을 불러 이르기를, 불경죄를 범한 사람을 빨리 놓아 주므로 재상들이 징계되지 않는다. 불경한 사람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치는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고 하라.”¹⁰⁾고 하였다.

3일에는 이세좌가 사면되어 귀경하였고, 단봉문 밖

10) 『연산군의 일기』 권52, 10년 3월 11일.

에서 사은하였는데, 이 직후 조정의 여러 관원들이 이세좌를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이 일이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왕이, 세좌가 귀양갔다가 방면되어 돌아왔을 때, 조정 재상들이 많이 세좌를 방문했다고 하여 승정원에 물기를) 다른 재상이 죄가 있어 귀양갔다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이르지 않을 것이니, 이는 바로 세좌의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서이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22일)

이에 따라 연산군은 대간을 지내면서 이세좌에 대하여 논하지 않은 자를 적발토록하고, 이세좌가 돌아왔을 때 조정의 신하로서 방문한 자를 찾아내도록하는 한편, 전후 대간으로서 이세좌를 벌주기를 청하지 않은 자를 밝혀 아뢰라하였다. 그리고 이극균·성준·유순 등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세좌의 일을 묻게하여 이들의 의중을 살폈다. 이에 이극균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릇 반역을 도모한 대역의 죄나, 난신 적자인 뒤에야 종묘 사직에 관계된다고 합니다. 『大典』 祭祀條에 이르기를, 큰 불경(大不敬)은 죽을 죄요, 불경죄는 그 다음이라 하였습

니다. 세좌는 불경죄를 범하였으므로, 공필 등이 난신적자와는 죄가 같지 않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글렀으니, 옥에 가두어야 하였습니다. (『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7일)

그런데 연산군은 이극균의 말을 잘못이라 하면서, 이극균을 국문하라 하기에 이른다. 이어 전교하기를,

지금 세상을 보면, 선비들의 풍습이 변하고 박하여져서, 재상이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인군을 그르다 하며, 또 자제들을 교훈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된 자도 부형의 말을 듣고 역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 점점 높은 체 논란하는 풍습을 이루니, 이러고서 위에 인군이 있다 하겠는가? 군신의 분별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군신의 분별이 없어진다면, 三韓의 오래 전해오는 왕업이 어찌 떨어지지 않겠는가? 세좌의 소위는 그 불경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8일)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세좌를 다시 거제도에 유배시키면서, 그의 네아들과 홍귀달의 아들 홍언국을 서북지방으로 부쳐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비록 학식이 없지만 옛날의 역사를 보았다. 포악하기가 桀紂 같은 임금 때도 세상에 왕자 比干이 있었고..... 지금 세상을 옛날 같이 할 수 없지만, 역시 위를 공경하는 의리가 있는 뒤에야 될 수 있으니, 지금 일이 있는 것을 인하여 불경하는 풍습을 통렬히 고치려 한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9일)

라고 하였다.

3월 22일 이후는 대신들로 하여금 폐비 윤씨의 묘호를 고치고 시호를 올리는 일을 의논하게 하는 한편, 승정원에 전교하여, “폐비할 때 의논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사약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들을 『일기』를 상고하여 아뢰라”하고 폐후의 시호를 ‘齊獻’으로, 懷慕를 懷陵으로 고치었다.

3월 25일에 이르러서는 광주이씨 가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세좌의 아우 세걸을 홍양에 부처하고, 아들 수원은 북청에 부처시켰으며, 이극균을 국문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내가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으려 하여 그 뿌리를 뽑고 있는데, 극균이 물래 비호하고 또 세좌의 사위 역시 함께 연좌해야 하는데, 극균이, 숙부가 아직 조정 에 있다하여 그 죄를 청하지 않으니, 매우 그르다.”¹¹⁾ 하였다. 이후 광리는 이세좌가 사약을 받고, 이극균

11) 『연산군 일기』 권52, 10년 3월 28일.

이 仁同縣에 부처되기에 이르렀다.

4월에 들어서 유순을 좌의정으로, 허침을 우의정으로, 윤구를 병조참판으로 삼아 숙청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4월 26일에는 인수대비가 사망하여 폐비윤씨사건의 처리와 갑자사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폐비 윤씨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조사하여 폐위 때 언문을 가졌은 성준과 노공필을 외방에 부처하고, 이극균과 그의 아들·사위를 모두 장 1백에 처하여 먼 변방으로 분배하고, 윤필상의 아들에게도 장 1백에 처하였으며, 윤필상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리고 정성근을 성종사후 3년간 素食하였다는 죄로 죽이고, 조지서를 농상의 죄로 죽였다. 이어서 이극균이 사사되고, 정창손·심희·한명희·어세겸·곽종원·김계신 등이 부관참시되었으며, 성준은 하옥되었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측근인 유자광과 임사홍 등은 사헌부에서 이극균과 교결하였으니 그 죄가 斬待時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3천리 流刑을 속바치고 그대로 일보게 하라는 조치를 취하였다.

5월 6일에 이르러서는 연산군이 백관을 거느리고 제헌왕후(폐비윤씨)를 인정전에서 추송하였다. 또 이세좌의 네 아들과 동생 세걸을 참형에 처하고, 유순, 허침, 박승질 등에게 선물을 하사하면서 일단은 甲子獄事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폐비윤씨의 追崇문제 등으로 권달수가 사형되는 12월까지 갑자

육사는 계속되었고, 이 때까지 이심원, 김경필, 임희재 등도 죽임을 당하였다.

이상에서 알아 본 바에 따르면,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신료들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처한 사건으로 의도된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갑자사화의 발단은 원로대신들이 하나씩 죽어가거나 致仕하는 시점을 택하여 원로대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이용하다가 이들이 거의 무용하게 되었을 때, 『凌上』이라는 작은 꼬투리와 폐비 윤씨 사건을 연관시켜 사건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이다. 또 척신의 동용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이러한 대옥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소위 갑자사화의 12간으로 지목된 인물들을 도표로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몰 연대	본관	인척관계	성종10년 관직(廢妃) 성종13년 관직(廢后)	피해 상황
李 坡	1434 - 1486	韓山	부, 李海(영종추부사)	지중추부사 세조판서	부친참사
鄭廷高	1402 - 1487	東萊	부, 鄭之(중추원사)	영의정 영의정	*
韓明倫	1415 - 1487	淸州	부, 韓宗堯의 정 성종비 공혜왕후의 모	상당부원군	*
沈 誦	1438 - 1493	靑松	부, 誦(영의정부사) 세종비 소헌왕후의 아우	철승부원군	*
全升輔	1430 - 1493	慶州	부, 新民(지중추원사)	승지 대사헌	*
金廷謙	1430 - 1500	西川	부, 宗瞻(판중추부사) 권경우의 장인	한성부좌윤 한성부판윤, 대사헌	*
韓致亨	1434 - 1502	淸州	인수대리와 사촌간	형조판서 좌참찬	*
尹鎭西	1427 - 1504	咸平	부, 鎭(참판) 세조비 경희왕후의 친족	추위정 *	진도에서 사약 받음
成 俊	1436 - 1504	高寧	부, 期純	전라도관찰사 승지	직산에서 사약 받음
李尙均	1437 - 1504	襄州	세조의 숙부, 고원공 자남	강원도관찰사 평안도첨도사	인동원에서 사 약받음
李洪佐	1445 - 1504	襄州	부, 洪楙(관서)	승지(선위사) 승지	유배지에서 사 약받음
權 柱	1457 - 1505	安東	부, 權	문과급제 승정원주서	술축년에 교살 됨

이를 살펴 보면, 12奸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성종이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를 폐출·사사할 때, 주요 최고 의 직책에 있었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갑자사화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12간 중 갑자사화 당시에 생존 인물은 5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성종 13년(1482:임인년) 윤씨 사사당시에 좌의정이었던 홍윤이나 영돈녕부사 윤호, 시독관 권경우처럼 12간과 같은 반열에 있던 자들로 갑자년에 화를 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 또 당시 대사헌이었던 채수는 가벼운 벌만을 받고 곧 풀려난 것에서 보듯이 모두가 화를 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의 기사는 사화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세좌가 전에 불경한 죄가 있는데도 대신과 대간이 모두 논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대간을 모두 폄강하였었다. 지금 <이세좌가> 방면되어 왔는데도 대간이 역시 말하지 않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한 것이므로 가둔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하면 뒤에 흉흉한 대신으로 친족의 성함을 믿고 불경하려는 자가 세좌로 경계를 삼을 것이고, 뒤에 대간이 된 자 역시 이를 경계삼아 간흉한 대신의 세력이 성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계할 것이다.(『연산군일기』 권52, 10년 3월 12일)

지금 세상을 보면, 노성한 대신이 있고 뒤이어 재상된 자가 있는데, 서로 비호하고 덮어 그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대간이 된자는 불경한 사람을 보고도 세력이 두려워 말하지 않고, ...그런데 3공6경 역시 그름을 말하지 않아

점차 봉당을 이루어, 인군으로 하여금 위에
고립되게 하니, 이런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고치지 않을 수 없다.(『연산군일기』 권52권,
10년 3월 13일)

위 기사의 시점은 연산군이 본격적으로 숙청을 시작하기 직전이다. 위 기사로 보면 당시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을 고립시킨채 봉당을 이루어 왕의 권위에 대항하는 적대세력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연산군은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용한 대신들이 노쇠해지는 시점에서, 급진적인 옥사를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시 확립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능상'으로 시작하여, 폐비사건을 더하면서 그에 대한 논죄라는 명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갑자사화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혼구파만을 주 타도 대상으로 하였다면, 또 폐비윤씨의 문제로 인한 단순한 복수극이었다면 이것을 “士禍”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갑자사화에서 대간 등 언관으로 진출한 신진의 사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사림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갑자사화에서 최대의 피해자들은 혼구파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2간으로 지목된 이들이 연산군의 왕권에 얼마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12간으로 지목된 인물중 갑자사화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인물은 윤필상·이세좌·이극균·성준·권주 등 5인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한치형·한명회·정창손·어세결·심희·이파·김승경 등 7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결국 갑자사화의 피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극균·이세좌 등 광주이씨, 성준 등의 창녕성씨 그리고 윤필상·한치형 등 선대의 척족 등만이 남는다. 따라서 갑자사화는 폐비윤씨의 추숭이 이루어진 뒤 홍문관을 폐쇄하고 삼사의 기구를 축소한 점 등으로 볼 때 언관이 희생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몇몇 번성한 문벌과 선대의 척족을 제거하기 위한 옥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전기에 가장 융성한 문벌로는 昌寧成氏와 廣

州李氏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창녕 성씨이면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까지 당한 성현(1439-1505 ; 세종 21- 연산군 10)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문벌이 번성하기로는 廣州李氏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成氏만 한 집안도 없다(『대동야승』 권1, 『용재총화』 권2)

창녕 성씨 역시 갑자사화로 인해 광주 이씨와 같이 성준, 성현 등이 피해를 입었으나 광리보다는 연산군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정도는 덜하였다. 성현은 이어서 광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광주이씨는 通村이후 ...극규는 판결사로 있고, ...극배는 우의정·광릉부원군이요, 극감은 형조판서·광성군이며, 극중은 광천군이요, 극돈은 이조판서·광원군이며, 극균은 지중추였으니, 모두 1품에 올랐는데, 이 네 아들은 공이 있어 畧으로 봉한 것이다. 광성군은 비록 일찍 죽었으나 그 아들 세좌는 지금 광양군이다.(『대동야승』 권1, 『용재총화』 권2)

광주 이씨는 세조의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에 오른

후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5극 또는 8극으로 불리운 인물들이 연이어 활동함으로써 조선전기의 최고 문벌로 자리잡았다. 이 광리를 갑자사화의 피해인을 중심으로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여기서 5극에 대한 약력을 갑자사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극배(1422-1495 ; 세종4-연산군1)는 세조 즉위시 좌익공신 3등에 봉해졌으며 1495년 야인정벌시 신숙주의 종사관으로 출진하여 공을 세웠다. 이후 평

안도 절도사,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대북방관계 실무에 정통하였다. 성종 때는 당상의 진강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당상관보다 홍문관에서 경연 진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신진 사림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에 대해 후세 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기개가 우람하고 도량이 깊고 사상이 확고하며, 평소에 말과 웃음이 적고 경학(經學)에 독실하고, 또 이치(吏治)에 능하며, 조복의 차림새로 조정에서 서면 위위가 엄연하여 사람들이 바라만 보고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초선(貂蟬)을 달기 전부터 이미 공보(公輔)의 물망이 있었다. 정권[政柄]이 손아귀에 들어온 지 오래였으나, 문앞에는 사알(私謁)이 없었고, 물(物)에 있어서도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었으며, 일찍이 가무(歌舞)나 관현(管絃)으로써 오락을 삼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의 일을 외논함에 있어서는 대체(大體)를 잃지 않을 것을 힘쓰며, 까다롭고 세세한 것은 캐지 않았고, 평생에 남의 과실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항상 가문이 크게 성한 것을 염려하여 자제들을 훈계하되 '무릇 무슨 물건이고 성하면 반드시 쇠하는 법이다. 너희들은 혹시라도 자만하지 말라.'하고, 두 손자의 이름을 이수겸(李守謙), 이수공(李守恭)으로 지어주

며, '처세하는 길은 이 두 글자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하였고, 아우 극균(克均)이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대양 경계하였다. 다만 성품이 인색하여 집에 있으면 비록 한 퇴한 말의 소소한 것일지라도 참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시호는 익평(翼平)인데, 사려(思慮)가 심원(深遠)한 것을 익(翼), 일을 집행하는데 절제가 있는 것을 평(平)이라 한 것이다.¹²⁾

이극감(1427-1465 ; 세종9-세조11)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세조반정 때 좌익공신 3등에 책봉되고, 신숙주와 더불어 『國朝寶監』을 수찬하고, 『治平要覽』, 『醫方類聚』 등을 교정 간행하였다. 1461년에는 신숙주와 함께 『北征錄』을 찬진하였다.

이극중(1431-1494 ; 세종13-성종25) 성종 15년(1484) 결동지성균관사로 문묘수축, 동·서무 확장 등 성균관의 일선에 힘썼는데, 특히 성종의 好學으로 유생의 실력부족이 자주 지적되자, 성균관의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방안으로 성균관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처벌과¹³⁾ 과거 시행에서 종래 초시에서는 製述 다음해 봄에야 회시에서 강경하던 제도를 바꾸어 초시에 강경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¹⁴⁾ 이러

12) 『연산군 일기』 권6 원년 6월 2일 계속.

13) 『성종실록』 권198 17년 12월 임신.

14) 『성종실록』 권206 18년 8월 갑술.

한 제도들은 시행되어 효과를 거두었으나 훈구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유지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의 제도 개선의 노력은 훈구파보다는 신진사림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극돈(세종17-연산군9 ; 1435-1503) 세조 3년 친시문과 급제, 성종 2년 좌리공신 4등에 녹훈되었고 전례와 사장에 능한 훈구파의 거두로 활약하였다. 무오사화의 장본인으로 지목되나 자신도 역시 피해자의 한사람이었다.

이극균(1437-1504 ; 세종19-연산군10) 세조 2년 식년시에 급제하였으나 무술에 뛰어나 선선관, 회령도사, 만포절제사를 거치며 建州衛 토벌에 공을 세웠다. 연산군 1년(1495) 평안도 관찰사, 연산군 6년 우의정을 역임하였고, 연산군 7년(1501) 좌의정 성준과 더불어 『西北諸蕃記』, 『西北地圖』 등을 편찬하였다. 그는 서북지방, 평양과 남방의 피폐한 고을을 살리기에 노력하였으며, 전라도 법성창의 세곡선이 대규모로 침몰하자 전라도의 세곡을 육지로 운반하고, 收稅 관할 구역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북방관계의 업무와 현실적 행정업무에 밝았다. 또한 그는 경상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생원 金宏弼, 鄭鐵堅, 전직관료 군수 郭順宗, 참군 朴始明 등을 천거하여 사림이 유일천거를 통하여 관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이었다.¹⁵⁾ 史官

15) 『성종실록』 권290, 25년 5월 경미.

은 『연산군일기』에서 이극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
記를 적고 있다.

극균은 너그럽고 넓은 기풍과 도량이 있었다.
젊어서 문과 출신하고, 겸하여 활쏘고 말달리
는 일도 연습하여 세조의 알아줌을 받아 뽑혀
서 선전관이 되어 병법을 지도하였다. 후에
여러번 변방지키는 장수가 되어서, 변방 일을
잘 알고 또 항상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
각하여 내외 관직을 역임하면서 마음을 다하
여 일을 보았다. 연산조에 좌의정이 되었는데,
왕의 행하는 일이 많이 착하지 못함을 보고
말로 글로 구원하려고 하니, 왕이 깊이 꺼려
하였다.(『연산군일기』 권53 10년 윤 4월 12
일)

이상을 통해 살펴보면 인손의 아들인 이극배의 형
제 즉 5극은 북방 관련 업무에서 특히 탁월한 업적
을 남겼으며, 그의 驛制, 築城, 漕運 등에서도 많은
치적을 남긴 대표적인 훈구 가문이었으며, 성종대 이
래로 고위관직에 이들이 동시에 진출하여 이조판서
와 병조판서를 형제가 계수받아 인사권이 한 집안에
편중되었다고 상피문제로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번
성했었다. 게다가 여러 훈구가문 중에서도 성균관의
정비, 과거제 개선, 사림 유일의 추천 등을 통하여
신진 사림과도 비교적 친분이 깊었다. 5극의 손자들

은 사림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림과의 친분과 학통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극배의 손자인 이수공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즉 광리는 훈구가문이면서도 새로 등장하는 사림세력과 친분을 유지하고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갑자사화는 전제적인 왕권의 강화를 추구한 왕과, 성리학적 명분에 따라 신권의 강화와 지방분권적인 이상적 유교사회를 구현하려한 신하들과의 대립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물론 12간으로 대표되는 훈구파는 연산군이 일방적으로 타도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세력인 사림과는 이들의 주 활동무대가 언관기구였으며, 왕성한 대간활동을 통하여 이상적 유교사회의 실현을 꿈꾸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양면성 속에서 전개된 갑자사화에서, 廣李家門은 이수공 같은 경우 훈구파라고만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피해도 받아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갑자사화 시기에 이르러서는 五克 중 극균만이 생존해 있었다. 또 극감의 아들 중 세우는 일찍 사망하였고 세좌와 세걸이 고관이었으며, 세좌의 네 아들도 벼슬길에 올라 있었다. 극배의 아들로는 도승지까지 오른 세광이 생존해 있었고 둘째 세충의 아들이며 김종직의 제자로서 무오사화에 연루되었다가 방면되어 홍문관 응교(정4품)에 오른 수공이 있었다.

12간으로 지목된 인물중에서 팔극중 하나인 이극균

은 윤씨의 폐비시에는 강원도 관찰사로, 賜死 당시에 평안도절도사로서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연산군대에 성준 등과 더불어 時弊十條를 올렸고, 또 이세좌를 벌할 때 비호하였다는 이유로 부처되어 죽음을 받았다. 이세좌는 임금앞에서 하사주를 쏟았고, 폐비윤씨의 사사당시에 사약을 가지고 간 도승지였다는 점에서 참화를 입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그렇게 참혹한 화를 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잔치 도중에 실수로 술을 쏟았고, 또 어떤 죄인을 유폐시키고 또 사약을 내릴 때 왕명을 받아 그 일을 집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0여명에 달하는 한 벌족 가문을 말살시켰다는 것은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연산군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자신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도가문을 억눌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특히 광주 이씨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숙청을 행하였다고 보여주는 기사들이 실록에 보인다.

이계동이 일찍이 어탐 근밀한 자리에서 과일을 던져 기생을 희롱한 것도 대간이 그것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하물며 세좌는 어탐 위에 올라와서, 내가 친히 잔대를 잡았는데도 얼지르기를 이렇게 하였으니, 세좌의 죄는 계동보다 더하다. 내가 처음에 본직만을 체임시킨

것은 생각에, 반드시 대간이 다시 죄줄 것을 청하리라 여겼기 때문인데, 지금 대간이나 조정에서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세과의 위세가 두려워 그런 것이다.(『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19일)

이극균·이세과의 족속들이 자리잡고 있으니, 세월이 오래되면 변이 생길 수도 있다. 옛날부터 화변이 일어남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서 나왔다. 그 사람들의 친족을 모두 난신의 예에 의하게 하라.(『연산군일기』53권, 10년 윤 4월 13일)

윤 4월 18일에는, 이세과의 아들·사위·아우로서 부처된 자는 궤하여 서인으로 하여 영구히 사판에 못오르게 하라고 하다.

윤4월 18일 김영순이 이극균에게 죽음을 인통에서 내리고 와서, 극균이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이 쌓여 있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까만, 신이 소시부터 변방에서 일 하였으며, 나라 일은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진심 갈력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한 가지도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을 주상께 전달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음을 고하였다. 이에 다음날 연산군은 병조에서 서제한 이극균

의 동성·이성 8촌 친족 및 그를 찾아 본 무사들을 변방 고을에 나누어 보내는 일을 내리고 이어, 위의 사람들을 병조로 불러서, 너희들의 죄가 아니고, 그 뿌리와 그루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해서이라고 말하라고 전교하였다.

지금 풍속을 고치는데 뒤에 사람들이 반드시 국가 일에 대하여 시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적발하여 고하게 하라...이극균·이세좌·윤필상·한치형·성준·어세겸 등의 죽친을 고생하게 하여, 그 후손을 징계하여야 하는데, 소재지의 수령들이 국법을 받들지 않고 사정에 따라 비호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각각 소재지에서 일 시키고 엄하게 규찰 단속하되, 만일 여기는 자가 있으면, 죄가 감사까지 미치게 하라(『연산군일기』 권53, 10년 5월 23일)

(이세좌의 아우 이세걸을 참형에 처한 기사 아래 史論으로) 왕이 이씨(광주이씨) 종친이 강성한 것을 근심하여, 모두 없애 종자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였다.(『연산군일기』 권53, 10년 5월 6일)

또 갑자년 다음해인 을축년에, 廣州사람 중에 亂言을 한 자가 있다는 이유로 廣州를 폐하기도 하여¹⁶⁾

16) 『연려실기술』 권6, 「연산조고사본말」.

광주이씨의 본거지를 폐쇄하여 억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상에서 볼 때 연산군은 훈구파 공신들의 세력이 번성하여 어느 정도 견제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신진 사림세력에 의한 왕권에 대한 견제와 제약 곧 연산군으로서는 농상의 풍조로 파악되는 악습 역시 타파해야 할 것이었다. 따라서 문벌의 성격과 사림의 성격을 모두 갖춘 광리는 갑자사화 최대의 희생자가 될 운명이었다.

Ⅶ. 結

『연산군일기』 撰者는 연산군의 성종에 대한 심리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왕은 성종에 대하여 모든 일을 반드시 반대로 했으니, 비록 겉으로는 성종의 성덕을 칭찬 하였지마는, 마음속으로는 실상 이를 싫어했다. 여러 신하들이 만약 성종의 성덕을 칭찬 하면 곧 기뻐하지 않았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성종을 원수같이 보았다.(『연산군일기』 권 46, 8년 10월 24일)

연산군은 즉위하던 당시부터 폐비윤씨 즉 생모의 비극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그는 성종이 윤씨를 계출하던 당시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諫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성종에 대해서도 열등감과 함께 반발심 또는 원한을 간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그는 성리학 적 도덕정치를 내세우는 신하들과 융화할 수 없었고, 자연 그들로 부터 격리·고립되었다. 따라서 그 반작용으로서 반항과 고립에서 일어난 것이 그의 퇴폐적 인 향락들이고, 이것이 유교적 도덕관념과 충돌하면서 빚어낸 것이 갑자사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와그너(Edward W. Wagner)는 “갑자사화는 사실 따져 보면, 극히 시시한 그러나 “凌上”이라는 罪目을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안성마춤인, 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¹⁵⁾라고 하여 임사홍에 의한 폐비윤씨 사건의 발고가 갑자사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듯이, 연산군은 즉위하던 해에 이미 폐비 윤씨에 대한 전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갑자사화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임사홍 등의 간신들에 의한 사림제거와 폐비윤씨 문제에 의한 연산군의 보복이라는 측면보다는, 연산군이 자신의 無所不爲의 왕권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사홍 등의 역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보이듯이, 연산군이 일으킨 사화에 임사홍 등이 편승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렷다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에 사신이 평하기를, 처음 유녕의 부 주계군 심원이 성종을 면대하여, 임사홍의 간사함을 극론하였는데, 사홍이 이로 인하여 오래도록 폐출 금고되어 원한이 끝수에 사무쳤다. 그러나 말하지 못하다가 뜻을 얻은 후에는 죄를 얻어 만들어서 유녕과 그 부 심원과 아우 유반을 죽였다.(『연산군일기』 권53, 10년 윤4월 20일)

15) Edward W. Wagner, 「政治史的 立場에서 본 李朝 士禍의 性格」(『歷史學報』 85, 1980), p.137.

여기에서 임사홍 등이 뜻을 얻은 후라는 것은, 아마도 연산군이 본격적으로 신하들을 숙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사홍 등은 갑자사화가 시작된 이후에 보다 더 중요한 역할, 즉 사화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화 되는 데에는 중요 역할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화를 연어나갔다고 하는 것은, 연산군의 심리상태나 왕권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의도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이상과 같은 고찰이 갑자사화의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쫓리는 연산군의 심리상태와 추구했던 의도상 가장 눈에 거스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가문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갑자사화(갑子士禍)와 광리(廣李)에 대한 논평

백남옥(동서울대학교)

최영희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갑자사화와 광리」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하신 것이어서 방법론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갑자사화는 전체적인 왕권 강화를 추구하려는 왕권집단과 성리학적 명분론을 추구하려는 신권집단의 대립적 소산이라는 견해와 광주이씨의 정치적 연관성을 규명한 것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것과 연관지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중세사회의 정치세력은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계층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함으로써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벌의 경우 사회세력→정치세력→정치집단→권력집단의 층위에 따라 형성된다는 일반적인 이해를 수용한다면 광리가문은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광리가문의 경우 권력유지를 위한 재생산 구조 장치가 마련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2. 왕권강화의 차원에서 연산군의 행적을 이해한 것은 사회의 성격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의 축출과정은 왕권과 신권이 등을 돌린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산군을 지지한 정치세력이 신권세력보다 약해서 인지, 어느 쪽으로 해석이 타당한지.

3. 실제로 훈구·척신세력은 파전과 공신전을 가반

으로 다진 세습 관료집단이라 이해하고 반면에 사림파는 지방사회에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훈구계열이 사유지를 처음부터 소유한 반면에 사림파는 군전(軍田)인 준과전의 형식으로 소유를 재인정받는 것이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광리가문(廣李家門)은 이수공파 같은 경우 훈구와 사림적인 속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점인데 이 부분은 광리가문의 경제적인 토대가 보완 설명되어야만 의미가 명확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세기에 이르면 농업경제력의 향상(연작상경변連作常耕法)에 따른 상업·수공업 등에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기성관료와 척신들이 새로운 자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정치적 동요 즉, 사회가 발생하였다는 사회경제인 시각도 있다. 이에 광리가문의 경제적 토대와 그 운영의 실체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신료들에 대한 인사를 직접 주도하는 한편 언관·언론기능의 축소와 왕권 견제기능의 제거를 도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필자께서 지적한 이세좌에 대한 능상(凌上)의 불경죄(不敬罪)는 왕권 강화의 정치작업에 대한 일환이고 내면적으로 생부 성종에 대한 열등의식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산군은 대전체제의 변동이란 변칙적 범운영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 갑자사화 이전에 광리가문은 대전체제(大典體制)의 운영에 어떠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위원회

대회장 : 남선우

위원장 : 한춘섭

위 원 : 허창무, 전보삼, 장철수, 백남옥,
천화숙, 조병로, 소진광, 조유전

간 사 : 이완우, 이수용, 김후정, 채수복

향토인물 연구

인 쇄 : 1998년 10월 5일

발 행 : 1998년 10월 16일

발행인 : 남선우

편집인 : 광주이씨 도유사 이우영

발행처 : 성남문화원(부설)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전 화 : (0342)781-1020/팩스:(0342)709-5246

※ 이 자료집 발간은 광주이씨 대종회의 문화사업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